

2021년 예산안 중점 프로젝트 40선 예산

2020. 9



목 차

I. 10대 핵심 프로젝트

1. 한국판 뉴딜 본격추진을 위한 투자	3
2. 200만개 이상 일자리를 지키고 새로 창출하는 투자	5
3. 지역사랑상품권, 소비쿠폰 등 20조원의 민간소비 창출	8
4. 혁신도시, 지역소멸대응 등 국가균형발전 본격투자	10
5. 혁신적 뉴딜투자펀드 조성	12
6. 기업 유동성·신성장 투자를 위한 정책금융 73조원 공급	13
7. 일자리·주거·금융·교육 등 청년 희망패키지 투자	14
8. 생계·의료·주거·교육 4대 사회안전망 확충	16
9. K-방역 + 자연재해예방 +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18
10. 국민생활환경 청정화 3대 프로젝트	21

II. 12대 협업예산 중점과제

11. 체계적인 신기술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25
12. 스마트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정부혁신	26
13. 부처별로 산재된 데이터 이용창구를 일원화	27
14. 수소경제 조기도래를 위한 전주기적 지원	28
15.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신약·의료기기 개발	29
16. 세계최초 자율주행차 시대('27년) 선도	30
17. 시스템반도체 성장생태계를 본격 조성	31
18. 핵심 전략품목의 안정적 공급	32
19. 안전하고 쾌적한 미래학교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33
20.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34
21. 학대 위기·피해아동 보호 강화	35
22. 산업단지, 지역경제 혁신거점으로 대개조	36

Ⅲ. 주요 패키지 예산

23. 매출 쑥쑥 성장하는 소상공인 디지털化	39
24. 중소기업 사장님 안심하는 튼튼 금융지원	41
25. 성장단계별 맞춤형 창업지원	43
26. 첨단산업의 세계공장化 지원	45
27. 공공조달이 마중물이 되어 혁신제품 시장 창출	47

28. 미래교육을 주도하는 온라인 원격교육 패키지 지원	48
29. 외래객 체감형 코리아토탈관광패키지 시범 실시	50
30. 한류 확산을 위한 K+X 정책 지원 확대	52
31.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54
32. 새로운 도전을 지원하는 혁신모험자본	56

33. 지역활력을 높이는 「지역소멸 대응 프로젝트」	58
34. 일·가정 양립에 중점을 둔 보육과 돌봄 확충	59
35. 중장년의 재기를 돕는 일자리 지원 패키지	60
36. 전 취업자 고용보험 단계적 확대	61
37. 맞춤형 주거복지 확대	62

38. 국군장병 사기진작 7종 패키지 지원	64
39. 첨단무기의 국산화를 통한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65
40. 인프라 건설에서 사후관리까지 맞춤형 패키지 ODA	66

I . 10대 중점 프로젝트

1

한국판 뉴딜 본격추진을 위한 투자

(기획재정부 담당 : 국토교통예산과, 류재현 사무관, 044-215-7331)

□ 예산 : ('20추~'25년 계획) 114.1조원 → ('21안) 21.3조원

구 분 (국비기준, 조원)		투자계획		'21년 예산안
		'20추~'25년	'20추~'22년	
총 계		114.1	49.0	21.3
디지털 뉴딜	합 계	44.8	18.6	7.9
	1. D.N.A. 생태계 강화	31.9	12.5	5.4
	2.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0.8	0.6	0.1
	3. 비대면 산업 육성	2.1	1.1	0.5
	4. SOC 디지털화	10.0	4.4	1.9
그린 뉴딜	합 계	42.7	19.6	8.0
	5.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12.1	6.1	2.4
	6.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24.3	10.3	4.3
	7.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6.3	3.2	1.3

안전망 강화

합 계		26.6	10.8	5.4
1. 고용사회 안전망		22.6	9.3	4.7
2. 사람투자		4.0	1.5	0.7

□ 주요 내용

- ◇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에 21.3조원 투자
- 디지털 뉴딜 7.9조원, 그린뉴딜 8.0조원, 안전망 강화 5.4조원

① 디지털 뉴딜 7.9조원

- 데이터 댐 구축, 쏘산업의 5G·AI 융합 확산, 지능형 정부 구현,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 등 D.N.A 생태계 강화에 5.4조원

* AI학습용 데이터 150종 구축, 4.4만개 공공데이터 개방,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6천개), 디지털콘텐츠 제작 지원, 57개 비대면 공공정보시스템 구축 등

- 초중고·대학·직업훈련기관의 온·오프라인 융합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디지털 교육 인프라 구축 및 콘텐츠 확충에 0.1조원

- 의료·돌봄·근무·비즈니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비대면 서비스·산업 육성에 0.5조원

* 호흡기전담 클리닉 1,000개소 확대, 비대면 헬스케어 9만명 지원, 8만개 중소 기업 원격근무 지원을 위한 바우처 지원, 스마트상점 2.3만개 보급 등

-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도시·산단의 공간 디지털 혁신,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등을 통해 **SOC 디지털화**에 **1.9조원**

* 국가하천 1,218개소 수문 원격제어장치 설치, 스마트시티 기술을 27개 도시에 적용, 중소기업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3개소 확충 등

② 그린 뉴딜 8.0조원

-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녹색 생태계 복원, 스마트 물 관리 체계 구축 등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에 **2.4조원**

* 519개 초중고교 그린 스마트 스쿨 전환, 그린리모델링(임대주택 8.2만호 등), 자녀안심 그린숲 50개소, 25곳 스마트그린시티 조성,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등

- 지능형 스마트그리드 구축, 신재생에너지 확산 지원,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등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에 **4.3조원**

* 아파트 225만호 대상 스마트 전력량계 보급, 국민주주프로젝트 등 신재생 에너지 투자·금융 지원(1.0조원), 전기·수소차 11.6만대 보급 등

- 저탄소·녹색산업 조성, **R&D**, 녹색 금융 지원 등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에 **1.3조원**

* 녹색유망기업 75개사 육성, 소규모 사업장 3천개소 대상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스마트 생태공장 30개소 구축,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 430억원 조성

③ 안전망 강화 5.4조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에 **4.7조원**

* 40만명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2년까지)로 15.7만가구 생계급여 신규 지원 등

-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제로 개편, 농어촌·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등 **사람투자에 0.7조원**

* 디지털융합 가상캠퍼스 8개 신설, 공공와이파이 1.5만개소 확충, 전국민 디지털역량 읍면동 교육센터 1천개소 운영 등

2

200만개 이상 일자리를 지키고 새로 창출하는 투자

(기획재정부 담당 : 고용환경예산과, 주희택 서기관, 044-215-7231)

(부처 담당 : 고용노동부, 박진혁 서기관, 044-202-7214)

□ 예산 : ('20) 57,474억원 → ('21) 86,382억원

(단위: 억원)

구 분		'20년	'21년	주 요 변 화
계		57,474	86,382	
1. 고용유지		754	12,559	
① 고용유지지원금		351	11,914	■ ('20) 2만명 → ('21) 45만명
②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403	645	■ ('20) 5개소 → ('21) 8개소
2. 민간일자리		28,133	42,658	
청년	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9,919	12,018	■ ('20) 29만명 → ('21) 38만명
	② 청년 디지털 일자리	-	4,676	■ ('21) 5만명(신규)
	③ 청년내일채움공제	12,820	14,017	■ ('20) 38만명 → ('21) 44만명
	④ 국민취업지원제도	1,122	1,674	■ ('20) 9만명 → ('21) 10만명
	⑤ 취업성공패키지	762	1,837	■ ('20) 5만명 → ('21) 13만명
중장년	① 조기재취업 수당	2,594	3,474	■ ('20) 7.7만명 → ('21) 9.5만명
	② 직업훈련 생계비	-	75	■ ('21) 2,500명(신규)
	③ 재취업지원 서비스	-	53	■ ('21) 500개사(신규)
소상공인	① 신사업창업사관학교	167	190	■ ('20) 12개소 → ('21) 15개소
	② 희망리턴패키지	420	691	■ ('20) 3.1만명 → ('21) 4.6만명
	③ 스마트상점	17	220	■ ('20) 0.1만개 → ('21) 2.3만개
	④ 소상공인 스마트화 융자	-	3,000	■ ('21) 6,000명(신규)
	⑤ 비대면 온라인 판로지원	313	734	■ ('20) 2.9만건 → ('21) 5.3만건
3. 공공일자리		28,587	31,164	■ ('20) 95만명 → ('21) 103만명

□ 주요 내용

◇ 기존 일자리를 유지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하여 신속한 경제회복을 도모

1. 고용유지 : 46.1만명 ('20) 754 → ('21) 12,559억원

①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에게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를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45만명 지원(1.2조원)

②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역 맞춤형 중장기 일자리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8개 지역 지원(0.8만명, 645억원)

*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역 경제·산업정책과 연계한 '중장기 일자리사업' 계획·추진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2. 민간일자리 창출유도 : 57만명 ('20) 28,133 → ('21) 42,658억원

① **(청년)** 청년 일자리 창출 독려 위해 채용보조금, 청년 디지털 일자리 제공, 자산형성 등 지원

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1명당 연900만원 지원(신규 9만명)

② **(청년디지털일자리)** IT분야 직무에 청년을 신규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 지원(최대 180만원×6개월)

③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들의 중소·중견기업 취업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목돈(1,200만원) 형성 지원(신규 10만명)

* 12백만원: 본인 3백만원 + 기업 3백만원 + 정부 6백만원

④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중인 청년(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0만명에게 구직수당(월50만원×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⑤ **(취업성공패키지)** 국민취업지원제도 미대상 청년(중위소득 120% 초과) 13만명 대상 상담·훈련·취업알선을 단계별 맞춤형 지원

② **(중장년)** 구직급여 수급 중 조기 재취업시 인센티브 확대, 직업 훈련 생계비 지원 및 재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① **(구직급여 조기재취업 수당)**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일자리복귀 지원을 위해 조기 재취업시 잔여급여의 일부 지급(9만명)
- ② **(직업훈련 생계비)** 직업 훈련기간 동안 훈련 참가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계비를 지원(2,500명, 최대110만원×6개월)
- ③ **(재취업지원서비스)** 서비스* 제공 의무화 기업에 제도 도입에 관한 컨설팅,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보급, 담당자 교육 등 지원(500개社)

* 경력·적성 진단,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창업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

③ **(소상공인)** 신사업분야 창업 및 재기 지원,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화 지원

- ①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 소상공인 대상 교육·점포체험·사업화 자금을 패키지 지원(12→15개소, 사업화자금 지원 360명)
- ② **(희망리턴패키지)** 폐업 소상공인 대상 사업정리·취업·재창업을 패키지 지원(3.1만건→ 4.6만건, 재창업자금 지원 1,200명)
- ③ **(스마트상점)** 소상공인 사업장에 서빙로봇, 비대면주문시스템 등 스마트 기술 도입 지원(0.1만개→ 2.3만개, 약 2,500명 추가고용 예상)
- ④ **(소상공인 스마트화 융자)**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 도입, 온라인 판로 진출 등을 지원하는 융자(0.3조원)
- ⑤ **(온라인 판로지원)** 라이브커머스·쇼핑몰 입점 지원, 구독경제화(신규), O2O융합기획전(신규) 등 5.3만건 지원(약 8,000명 추가고용 예상)

3. **공공일자리 제공 : 103만명** ('20) 28,587 → ('21) 31,164억원

- ①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직접일자리 103만개 지원**

* 월 60시간 이상의 질 좋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0.8만개 확대(3.7→4.5만명)

* AI·SW 등 디지털 분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2.6만개 지원

3

지역사랑상품권, 소비쿠폰 등 20조원의 민간소비 창출

(기획재정부 담당 : 문화예산과, 김낙현 사무관, 044-215-7272)

(기획재정부 담당 : 행정예산과, 김남희 사무관, 044-215-7411)

(기획재정부 담당 : 산업중소벤처예산과, 하치승 사무관, 044-215-7316)

□ 예산 : ('20) 4,927억 원 → ('21) 18,177억 원 (+13,250억 원, +268.9%)

① 4+4 바우처·쿠폰 (0.2 → 0.5조원, +159.2%)

4대 바우처	① 농산물구매지원 : 64만명(499억원) → 82만명(701억원) ② 통합문화이용권 : 161만명(1,032억원) → 177만명(1,261억원) ③ 스포츠강좌이용권 : 5.9만명(277억원) → 7.2만명(332억원) ④ 근로자휴가지원 : 8만명(85억원) → 10만명(110억원)
4대 쿠폰	⑤ 농수산물쿠폰 : 신규, 1,200만명(1,220억원) ⑥ 외식쿠폰 : 신규, 660만명(670억원) ⑦ 숙박쿠폰 : 신규, 150만명(432억원) ⑧ 체육쿠폰 : 신규, 60만명(180억원)

②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0.3 → 1.3조원, +337.4%)

지역사랑 상품권	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 3조원(721억원) → 15조원 규모(10,522억원)
온누리 상품권	② 온누리상품권 발행 : 2.5조원(2,313억원) → 3조원 규모(2,749억원)

□ 주요 내용

◇ 20조원 규모의 민간소비 창출을 위해 4+4 바우처·쿠폰 공급 및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할인·발행 지원

① 4+4 바우처·쿠폰 지원 ('20) 1,893 → ('21) 4,906억원

-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농수산·문화·관광 분야에 2조원의 소비여력 창출을 위한 4+4 바우처·쿠폰 지원(2,346만명, 4,906억원)

(단위 : 만명, 억원)

구분		지원내용	인원	예산
4대 바우처	농산물구매지원	임산부·저소득층 등에 농산물·우유급식 등 제공	82	701
	통합문화이용권	저소득층 문화·체육·관광 활동비 연 10만원 지원	177	1,261
	스포츠강좌이용권	저소득 유·청소년, 장애인 스포츠강좌 월 8만원 지원	7.2	332
	근로자휴가지원	국내관광시 정부가 근로자 휴가비 10만원 매칭 지원 (근로자 20만원 + 기업 10만원 + 정부 10만원)	10	110
4대 쿠폰	농수산물 쿠폰	농수산물 구매시 20% 할인(최대 1만원) 지원	1,200	1,220
	외식쿠폰	2만원 이상 5회 외식시 1만원 모바일 쿠폰 제공	660	670
	숙박쿠폰	온라인 숙박 예약시 2~3만원 할인쿠폰 제공	150	432
	체육쿠폰	실내체육시설 월이용권 구매시 3만원 환급	60	180

②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발행 ('20) 721 → ('21) 10,522억원

- 전국 어디에서나 연중 **10% 할인**된 가격에 구입 가능한 지역 사랑상품권 **15조원 발행(6~8%)** 지원 → **10% 할인 판매**

* 15조원 지원 계획 : 9조원 8%, 5조원 6%, 1조원 3~4%

- 지역수요, 경기여건 등을 고려하여 '20년에는 지원하지 않던 불교부단체에 대해서도 '**21년 한시 국비** 지원(1조원, 3~4%)
- 고용·산업위기지역(9개소) 중심으로 특별교부세를 활용하여 추가 할인판매 등을 위한 인센티브(평균 **2%**) 지급 추진(약 200억원)

③ 온누리상품권 할인·발행 ('20) 2,313 → ('21) 2,749억원

- 전국 전통시장·상점가에서 이용가능한 온누리상품권 **3조원 발행** → 전통시장·상점가의 매출 기반 확대 유도
- 모바일 상품권* **2,000억원**(상시 10%할인 판매) 등 발행 물량 **3조원**을 평균 **5.5% 할인 판매** 추진

* 전통시장·상점가 內 온누리상품권 취급점 중 소상공인 간편결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4

혁신도시, 지역소멸대응 등 국가균형발전 본격투자

(기획재정부 담당 : 기재부 지역예산과, 이은숙 사무관, 044-215-7551)

(기획재정부 담당 : 기재부 행정예산과, 김남희 사무관, 044-215-7411)

□ **예산 : ('20) 13.3조원 → ('21) 16.6조원 (+3.3조원, 24.8%)**

① 지역발전투자 (10.9 → 11.8조원, +8.6%)

- ❶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 4,348억원 → 7,259억원
- ❷ 혁신도시-공공기관 연계 10대 투자사업(450억원) 및 복합체험시설(450억원)
- ❸ 생활 SOC : 10.5조원 → 11.1조원

② 지역경제 활력 (0.3 → 0.4조원, +48.9%)

- ❶ 지자체-산학연 협력 인력양성 플랫폼 : 3개(1,080억원) → 4개(1,710억원)
- ❷ 지역특화산업 : 20개(1,471억원) → 37개(1,951억원)
* 규제자유특구(14개→23개), 강소특구(6개→12개), 녹색융합 클러스터(신규 2개)
- ❸ 문화·관광 인프라 : 259억원 → 567억원

③ 지역소멸 대응 프로젝트 (1.8 → 2.3조원, +26.8%)

- ❶ 인력유입·정착 : 6,360억원 → 8,721억원
* 지역 디지털 청년일자리(7천명), 청년농 육성(4,800명→5,000명)
- ❷ 지역활성화 : 1.2조원 → 1.4조원
* 어촌뉴딜(4,305억원→5,180억원), 도시재생 뉴딜(6,825억원→8,363억원)
- ❸ 다문화포용 : 327억원 → 387억원

④ 지방재정 보강 (3.1 → 5.1조원, +62.0%)

- ❶ 지방채 인수규모 : 0.7조원 → 2.6조원
- ❷ 균특 포괄보조사업 : 2.4조원 → 2.5조원

* 각 프로젝트 중에 '20년에 2.8조원, '21년에 3.0조원 중복

□ **주요 내용**

◇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역 특화산업 육성,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한 인력 유입·정착 체계 구축 및 지방재정 보강**

❶ 지역발전 3대 핵심과제 ('20) 10.9 → ('21) 11.8조원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광역 연결 교통·물류망을 구축하고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23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원(0.4→0.7조원)

- **(혁신도시)**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협업하는 **10대 투자과제***(신규, 450억원) 및 이주가족의 여가를 위한 **복합체험시설****(신규, 450억원) 건립 지원

* (예시) 충북 진천 K-스마트 교육 시범도시 : 진천지역 학교에 비대면 교육 및 AI영재 학급, 5G+ 실감학습터 구축(공공기관은 콘텐츠 제공, 지자체교육청은 공간 및 교구 제공)

** (예시) 전주혁신도시 어린이 생태체험관, 제주서귀포혁신도시 어린이직업체험관

- **(생활 SOC)** 노후시설 개보수, 클린사업장 조성 등 **안전·안심** 분야 지원 강화에 따른 **생활 SOC 투자 확대**(10.5→11.1조원)

② 지역경제 활력 제고 ('20) 0.3 → ('21) 0.4조원

- **(지역인재)** 지역내 '인재양성 → 기업채용'이 연결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산학연이 협력하는 **인력양성 플랫폼** 확대(3개→4개)
- **(지역특화산업)** 규제자유특구(14개→23개), 강소연구개발특구(6개→12개), 녹색융합클러스터(신규 2개) 등 **3대 특화산업 인프라** 투자 확대
- **(문화·관광 인프라)**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있는 문화·관광지역 조성을 위해 **문화·관광도시 지정**을 확대(12개→17개)하고 도시브랜드 개발 등 맞춤형 지원 추진

③ 지역소멸대응 프로젝트 ('20) 1.8 → ('21) 2.3조원

- **(인력유입)** 젊은 층의 농어촌 유입을 위해 지역 **디지털 일자리 (7,000명)**를 확충하고 **청년농 육성(5,000명)** 등 적극 지원
- **(정착)** 유입된 젊은 층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청년자립마을**을 확대(3개→15개)하고, 농촌 6개월 미리살아보기 등 **귀농귀촌 패키지** 지원(80개 시군)
- **(지역활성화)** 인구감소지역을 거주강소지역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농촌공간정비 프로젝트**(신규 5개) 및 **어촌뉴딜** 확대(190개→250개)

④ 지방재정 보강 ('20) 3.1 → ('21) 5.1조원

- 어려운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지방채 인수규모**를 확대(0.7→2.6조원) 하는 등 지방재정 부담 완화 지원

5

혁신적 뉴딜투자펀드 조성

(기획재정부 담당 : 기금운용계획과, 정윤홍 사무관, 044-215-7171)

(기획재정부 담당 : 산업벤처예산과, 정민철 사무관, 044-215-7312)

(기획재정부 담당 : 고용환경예산과, 박성준 사무관, 044-215-7236)

□ 예산 : (신규) 1조원

□ 주요 내용

◇ 정책자금을 마중물로 민간투자와 결합하여 혁신금융자금을 공급함으로써 「한국형 뉴딜」을 지원하고 벤처·스타트업 성장 촉진

① 뉴딜펀드

: 「한국형 뉴딜」을 뒷받침하는 국민참여형 정책펀드 조성

- '21~'25년간 정부·정책금융기관·민간이 함께 재원을 조성
- 조성된 재원을 바탕으로 디지털 인프라, 그린·바이오 등 「한국형 뉴딜」의 핵심분야에 투자

② 스마트대한민국펀드

: 스타트업 육성과 디지털 전환을 위한 민관합동 벤처펀드

- '20~'25년간 총 6조원 이상의 재원 조성
- 비대면·바이오·그린 분야의 벤처 및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

③ 미래환경산업펀드

: 성장가능성이 높은 환경기업에 투자하여 성장 지원

- '21~'25년간 2,150억원 수준의 재원 조성
- 녹색산업 분야의 강소기업 201개소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

6

기업 유동성신성장 투자를 위한 정책금융 73조원 공급

(기금운용계획과, 정윤희 사무관, 044-215-7171)

(산업벤처예산과, 정민철 사무관, 044-215-7312)

□ 예산 : ('20) 26.4조원 → ('21) 33.9조원(+7.5조원, 28.4%)

□ 주요 내용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기업 신성장을 위한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① 투자 지원 ('20) 1.5 → ('21) 2.3조원

- 창업초기 유망 벤처기업에 집중투자하는 모태펀드를 조성하고 소재·부품·장비기업에 투자하는 혁신모험펀드를 확대
- 부실징후기업 경영정상화를 위한 기업구조혁신펀드도 지원

② 보증 지원 ('20) 0.8 → ('21) 1.6조원

- 소부장 및 비대면 분야에 정책보증을 공급하는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재정을 보강하고 수출기업 지원을 담당하는 무역보험공사에 대한 출연 확대

③ 융자 지원 ('20) 24.1 → ('21) 30.0조원

- 산업은행·기업은행의 산업구조 고도화, 환경·안전투자 사업 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진흥공단 융자 확대를 위한 재정 지원 확대

7

일자리·주거·금융·교육 등 청년 희망패키지 투자

(기획재정부 담당: 고용환경예산과, 이선택 사무관, 044-215-7233)

□ 예산 : ('20) 18.2조 원 → ('21) 20.7조 원 (+2.5조 원, +13.9%)

① 일자리 (3.0 → 3.9조원, +29.5%)	
일자리 창출지원	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29만명(9,919억원) → 38만명(12,018억원) ② 청년일자리창출지원(청년디지털일자리) : 신규, 5만명(4,676억원)
구직 지원	③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 : 9만명(미시행, 1,122억원) → 10만명(2,227억원) ④ 취업성공패키지지원(청년) : 5만명(762억원) → 13만명(1,837억원) ⑤ 문화예술·스포츠·식품 분야별 인턴십 지원: 695명(63억원) → 795명(66억원)
취업역량 강화	⑥ 디지털 융합 가상캠퍼스 : 신규, 2만명(1,048억원) ⑦ 산학연 연계 실전형 혁신인재 양성 : 4.7만명(3,934억원) → 6.3만명(4,677억원) ⑧ 신진예술가 및 문화예술 전문인력 육성 : 1,576명(161억원) → 2,766명(242억원)
창업 지원	⑨ 민간주도 기술창업(TIPS) : 2,250명(300팀, 2,000억원) → 3,000명(400팀, 2,313억원) ⑩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 : 75팀(20억원) → 100팀(26억원) ⑪ 청년창업사관학교 : 창업 전 단계 패키지 지원 1,000명(932억원)
② 생활안정 (11.2 → 12.3조원, +10.5%)	
주거 · 금융	① 청년공공임대주택 확대 : 4.5만호(45,613억원) → 5.0만호(50,977억원) ② 20대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 신규, 3.1만 가구(467억원) ③ 버팀목 전세·월세대출 확대* : 22,513억원 → 27,645억원 ④ 공실 오피스·상가 주거용도 전환 용자 지원 : 신규, 400호(200억원) ⑤ 저신용 대학생·청년 햇살론 Youth 확대 : 1,000억(150억원) → 1,330억(200억원)
자산 형성	⑥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 38.2만명(12,820억원) → 44.2만명(14,017억원) ⑦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확대 : 7,820명(218억원) → 8,035명(222억원) ⑧ 청년농 정착지원금 : 4,800명(314억원) → 5,000명(334억원)
③ 교육·복지 (4.0 → 4.5조원, +11.6%)	
장학	⑨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확대 : 1.9만명(768억원) → 3.1만명(1,330억원) ⑩ 고졸재직자 등록금 지원 확대 : 1.6만명(385억원) → 2.0만명(456억원) ⑪ 교외근로장학금 확대 : 4.9만명(1,765억원) → 6.0만명(2,161억원)
장병 복지	⑫ 장병 복지 지원 강화(사기진작 패키지) : 35,001억원 → 38,480억원 * 급식비 인상(8,493→8,790원/일), 이발비 지원(신규, 월 1만원), 자기개발비 확대(8→23.5만명), 실손보험 지원(신규, 월 5,390원), 모든장병 신형피복 지급, 초급장교장려금 확대(300→400만원), 독신자숙소 신·개축·보수(3,764→4,890실), 병인건비 인상('17년 최저임금의 40→45%) 등

* '20년 7.9조원, '21년 9.7조원에 '19년 청년지원 비율인 28.5% 적용

□ 주요 내용

◇ 높은 청년 실업률, 주거·학자금 부담 등으로 청년 삶의 어려운 상황
지속에 따라 이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지원 필요

① 구직·취·창업 일자리 쏠 단계 지원 ('20) 3.0 → ('21) 3.9조원(+29.5%)

- **(민간일자리 창출)** 청년 신규 채용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규 **9만명**(1인당 年900만원), 청년디지털 일자리 신규 **5만명**(180만원×6개월) 지원
- **(구직지원)** 저소득 구직자에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수당(50만원×6개월)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I유형) **10만명**, 상담·훈련·취업알선을 단계별 맞춤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13만명** 지원
- **(역량강화)** 대학생 신기술 교육을 위한 디지털 융합 가상캠퍼스 신설, 4차 산업혁명 실전형 전문인재 **6.3만명** 양성 지원
- **(창업지원)** 민간 주도 기술창업(TIPS) **400개팀** 및 전통문화 분야 창업 **100팀** 지원

② 주거·금융·자산형성 등 생활안정 지원 ('20) 11.2 → ('21) 12.3조원(+10.5%)

- **(주거)** 청년 전용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공급, 미혼청년 대상 주거급여 분리지급(3.1만가구) 등
- **(금융)** 저신용 대학생·청년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햇살론 youth 1,330억원 공급, 혁신창업사업화자금 2.45조원 공급
- **(자산형성)** 2년간 **1,200만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10만명,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0.8만명 등 지원

③ 교육사다리, 맞춤형 복지 등 교육·복지 지원 ('20) 4.0 → ('21) 4.5조원(+11.6%)

- **(선취업후진학)** 직업계고 졸업생 장려금 3.1만명, 고졸재직자 대학등록금 2.0만명 지원
- **(장학금)** 교외근로장학금 6.0만명, 인문**100년** 장학금 0.3만명, 꿈사다리장학금 0.3만명 등 지원
- **(장병복지)** 급식비 인상 8,493→8,790원/일, 병사 실손보험 가입, 月 1만원 이발비 등 장병 사기진작 패키지 지원

8

생계·의료·주거·교육 4대 사회안전망 확충

(기획재정부 담당 : 복지예산과, 최상구 사무관 등, 044-215-7511 등)

(부처 담당 : 보건복지부, 강태수 사무관 등, 044-202-3054 등)

□ 예산 : ('20) 41.7조 원 → ('21) 46.9조 원 (+5.2조 원, 12.5%)

① 생계 (5.2 → 5.5조원, +6.1%)

- ① 생계급여 : 43,379억원 → 46,079억원 * 부양의무자 폐지 +15.7만 가구(노인·한부모)
- ② 긴급복지 : 1,656억원(10.4만 가구) → 1,856억원(11.5만 가구)
- ③ 자활사업 : 5,807억원 → 5,956억원 (5.8만명, 급여 +1.5% 인상)
- ④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 767억원(2.3만 가구) → 869억원(3.3만 가구^{냉방물품})
- ⑤ 에너지바우처(난방·냉방 에너지바우처) : 781억원(67.3만 가구) → 803억원(70.2만 가구^{냉방})

② 의료 (17.2 → 18.7조원, +8.7%)

- ① 의료급여 : 70,038억원 → 76,805억원 (151만명)
- ② 건강보험가입자지원 : 89,627억원 (14.0%) → 95,000억원 (14.3%^{국고보조비율})
-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국고지원) : 12,414억원 (19.0%) → 15,186억원 (20.0%^{국고보조비율})

③ 주거 (18.0 → 21.0조원, +16.6%)

- ① 공적임대주택(청년) : 45,613억원(4.5만호) → 50,978억원(5.0만호)
- ② 공적임대주택(신혼부부) : 55,313억원(5.2만호) → 70,341억원(6.0만호)
- ③ 공적임대주택(다자녀) : 신규, 5,476억원(0.4만호)
- ④ 공적임대주택(고령자) : 7,974억원(1.0만호) → 9,884억원(1.2만호)
- ⑤ 주거급여지원 : 16,305억원 → 19,879억원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3.1만 가구

④ 교육 (1.2 → 1.7조원, +35.2%)

- ① 고등학교 무상교육 : 6,594억원(87.7만명) → 9,431억원(124.1만명)
- ② 교육급여 : 1,016억원 → 1,030억원 * 단가 평균 +20% 인상, 맞춤형 교육활동지원비
- ③ AI활용 학습진단시스템 구축 : 신규, 450억원
- ④ 근로장학금 : 3,282억원(10.9만명) → 3,681억원(12.0만명)
- ⑤ 고교취업연계장려금 : 1,107억원 → 1,669억원 (3.1만명, 단가 4→5백만원 인상)

□ 주요 내용

◇ 위기사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생계·의료·주거·교육의 4대 **사회안전망을 확충, 포용 국가**의 기반 구축

① (생계)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 강화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2년까지 폐지*하여 부양의무자의 有·無에 관계없이 **최저생활 보장**(단, 고소득·고재산가 제외)

* '21년 노인·한부모 가구(+15.7만 가구)→ '22년 전면 폐지(총 18.2만 가구, +2.5만 가구)

- (긴급복지)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대한 신속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확대**(10.4→11.5만 가구)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실직, 휴·폐업, 질병 등 위기사유 발생시 생계비(4인 月 123만원) 등 긴급 지원(최대 6회)

② (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

- (건강·요양보험) **홍부(유방)초음파, 심장초음파, 척추디스크** (추간판탈출증) 등 **급여화**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

- (의료급여) 취약계층(151만명)의 건강·의료보장을 지속 추진하고, 재가 의료급여 도입* 등 수급자 중심으로 서비스 質 제고

* 장기입원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500명, +15억원)

③ (주거)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

- (공적임대) 청년(4.5→5.0만호), 신혼부부(5.2→6.0만호)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18.1→19.0만호**)

- (주거급여) 학업 등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청년에 주거급여 분리지급(3.1만 가구) 및 기준임대료 지속 현실화

④ (교육) 빈곤층 교육기회 지원 강화

- (고교무상교육)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현재 2·3학년에서 전학년까지 전면 실시

- (교육급여) 단가 인상(평균 20%) 및 **교육활동지원비 신설***로 비대면학습 등 새로운 교육수요에 자율적·탄력적 대응 지원

* 부교재비·학용품비 등 항목 중심의 지원 →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9

K-방역 + 자연재해예방 +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기획재정부 담당 - K방역 : 연금보건예산과, 김형욱 사무관, 044-215-7534)

(기획재정부 담당 - 자연재해예방/국민생명 지키기 : 안전예산과, 유동훈 사무관, 044-215-7431)

□ 예산 : ('20) 5.2조 원 → ('21) 7.1조 원 (+1.9조 원, 36.5%)

① K-방역 (1.2 → 1.8조 원, +53.5%)

고도화	① 호흡기전담클리닉 : 500개소(추경 500억원) → 추가 500개소, 총1,000개소(500억원) ②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 3개소 착공(301억원)
산업화	③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임상지원 : 추경 940억원 → 1,378억원 ④ 신약 후보물질 도출~임상시험 전주기 지원(국가신약개발) : 신규, 452억원 ⑤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 5개소 지정(80억원) ⑥ 바이오공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한국형 NIBRT 도입 : 100명(6억원 → 30억원) ⑦ 의과학자·역학조사관 등 의료전문인력 연구실습비 지원 : 170명(신규, 22억원)
세계화	⑧ 해외 감염병 병원 등 인프라건설, 의료기기·백신치료제 보급 등 보건의료ODA 강화 : 2,488억원 → 3,327억원

② 자연재해예방 (2.1 → 2.6조 원, 22.4%)

하천·댐 관리	①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국가하천유지보수) : 807개소(1,808억원) → 2,025개소(누적)(4,129억원) ② 댐 안전성강화 1단계·2단계 : 380억원 → 420억원 ③ 스마트 댐 안전관리 : 13억원 → 150억원 * '23년까지 국가댐 37개소에 디지털 트윈·드론 등 첨단기술 기반 실시간 안전감시체계 구축
풍수해 예방	④ 재해위험지역 정비 : 4,365억원 → 5,119억원 * IoT기반 재해위험 조기경보시스템('20~'22년, 510개소),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20→35개소) ⑤ 위험저수지 개보수(수리시설 개보수) : 584개소(5,381억원) → 613개소(6,605억원)
산사태 예방	⑥ 사방댐(사방사업) : 296개소(553억원) → 390개소(740억원) ⑦ 산사태재난 경계피난 : 9억원 → 39억원 * 산사태취약지 실태조사(5천개소→19천개소)

③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1.9 → 2.7조 원, 40.9%)

교통사고 예방	① 무인교통단속장비(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 0.4만개(1,768억원) → 0.8만개(2,496억원) ② 위험도로개선 : 1,221억원 → 1,482억원 * 210개소 지원
산재예방	③ 클린사업장조성(안전투자혁신사업) : 3,634억원(신규) * 3대 위험기계 전면교체(3,634개소), 뿌리산업 위험공정 개선(1,284개소) ④ 산재예방시설용자 1,228억원→3,228억원 * 1,134개소
정신건강	⑤ 자살예방전담인력(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 : 207명(291억원) → 314명(348억원) ⑥ 정신건강증진사업 : 685억원 → 910억원

□ 주요 내용

◇ 감염병, 풍수해 등 사회·자연재난 및 교통·산재사고 등 생활속 안전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예방투자 확대

< K-방역 >

①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확대** : 500개소, ('20 추정) 500 → ('21) 500억원

-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응하여 환자·의료진의 안전한 호흡기 진단·치료환경 구축('21년 500개소 추가하여 총 1,000개소 운영)

* 개방형 클리닉(보건소 등 공공시설 활용) + 의료기관형 클리닉(민간 의료기관 지정)

②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착공** : 3개소 ('20) 39 → ('21) 301억원

- 대규모 감염병 환자 발생 대비를 위한 감염병 전문 치료·교육

* (호남) 조선대학교병원, (중부) 순천향대학교병원, (영남) 부산대학교 양산병원

- 음압병상 등 시설을 갖춘 전문병원의 '21년 착공, '23년 완공 목표

③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지원** ('20 추정) 940 → ('21) 1,378억원
국가신약개발사업 (신규) 452억원

- 항체·혈장치료제 등 국내 유망 치료제 후보물질 10종, 백신 후보물질 12종에 대해 비임상+임상1·2·3상 단계별 지원

④ **바이오-ICT 융합 및 혁신인재 양성** ('20) 189 → ('21) 225억원

- 의료데이터중심병원 5개소 선정 등 의료빅데이터 축적·연계·활용 지원
- 바이오공정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한국형 NIBRT 도입(100명)
+ 의과학자·역학조사관 등 확충을 위한 연구·실습비 지원(170명)

⑤ **보건의료 ODA** ('20) 2,488 → ('21) 3,327억원

- 해외 감염병 병원 등 인프라 건설, 의료기기·백신치료제 보급 등 보건의료ODA 강화로 방역 선도국가 위상확립

< 자연재해 예방 >

① 국가하천·댐 관리 ('20) 0.6 → ('21) 0.9조원

-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807→2,025개소, 누적) 구축, 댐 안전성 강화* 지속 추진, 디지털 트윈·드론 등 첨단기술 기반 실시간 댐 안전감시체계 구축(37개소, 총사업비 1,061억원)

* 1단계 : 14개 용수전용댐(380→396억원, '14~'24년, 총사업비 2,803억원)
2단계 : 15개 다목적댐(신규 24억원, '21~'27년, 총사업비 6,013억원)

② 풍수해 예방 ('20) 1.4 → ('21) 1.6조원

- IoT기반 재해위험 조기경보시스템 구축('20~'22년, 510개소),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20→35개소), 수리시설 개보수(0.5→0.6조원)

③ 산사태 예방 ('20) 562 → ('21) 778억원

- 사방댐(296→390개소), 산사태 취약지역 기초·실태조사(5천→19천개소)

<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

①交通安全 환경개선 ('20) 1.7 → ('21) 1.9조원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0.8만개를 확충하여 '22년까지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추진
- 대형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급커브 등 위험도로 210개 구간 개선

② 산재예방 ('20) 1,228 → ('21) 6,862억원

- 인증제도 시행 전 도입된 미인증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리프트 4,911대 교체비용(50%) 지원(0.2조원, 50인 미만 사업장 3,634개소)
- 주조업, 소성가공업, 표면처리업 등 뿌리산업 위험공정 개선 비용(50%) 지원(0.1조원, 50인 미만 사업장 1,284개)
- 산재예방시설 저금리(1.5%) 융자 지원(0.1→0.3조원, 300인 미만 사업장 1,830개소)

③ 정신건강 ('20) 1,034 → ('21) 1,325억원

- 코로나 확진자·의료진, 소방관, 독거노인 등 고위험군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 운영, 자살예방 전담인력 약 200명 확충

10

국민생활환경 청정화 3대 프로젝트

(기획재정부 담당 : 기재부 고용환경예산과, 박성준 사무관, 044-215-7236)

□ 예산 : ('20) 2.2조 원 → ('21) 3.0조 원(+0.8조 원, +35.9%)

구분(억원)	반영 현황		설명
	'20추	'21안	
합 계	2.2조원	3.0조원	
1. 깨끗한 공기	1.0조원	1.3조원	
○ 청정대기시설 전환		3,600	○ 시멘트 소성시설 12개소(개소당 300억원, 용자)
○ 소규모 사업장 방지지설	2,200	1,500	○ 미세먼지 대책 로드맵에 따라 '21년 3천개소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2,896	3,168	○ 미세먼지 대책 로드맵에 따라 '21년 33만대 ○ 단가 : 1.6백만원, 보조율 60%
○ DPF 부착	1,383	1,520	○ 미세먼지 대책 로드맵에 따라 '21년 8만대 ○ 단가 : 3.5 → 3.8백만원 상향, 보조율 50%
○ 저소득층 저녹스 보일러 보급	150	180	○ ('20) 5만대, 50만원 → ('21안) 5만대, 60만원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30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30개소 ○ 단가 : 개소당 2억원, 보조율 50%
○ 약취 취약지역 관리	30	37	○ 약취 자동채취설비 신규 70기(15백만원, 70%) ○ 약취 실태조사 4개소(개소당 3억원)
○ 도로청소차 구입	216	216	○ CNG 134대(3억, 50%), 소형전기 30대(1억, 50%)
2. 맑은 물	0.9조원	1.1조원	
○ 스마트 광역상수도	(추경 156)	189	○ 취수원 수질감시시스템 24개소 ○ AI 정수장 1개소 ○ 스마트 관망관리시스템 14개소
○ 스마트 지방상수도	2,716	4,264	○ 스마트 관망관리시스템 72개소 지자체 신규 착공 * 총 161개 지자체 중 '20년 44개 지자체 착공
○ 노후 지방상수도 정비	4,680	4,531	○ 노후 상수관망 정비(113개소) 및 정수장 개량(36개소)
○ 오염지류 수질측정망		60	○ '25년까지 오염지류 수질측정망 40개('21년 10개소) ○ '25년까지 본류 수질자동측정소 10개소('21년 2개소) ○ '24년까지 다기능 측정소 7개소('21년 1개소)
○ 지류 유역진단		105	○ 21개 지류 유역진단(지류당 5억원, 105억원)
○ 낙동강 하굿둑 개방	32	75	○ 피해 저감대책 10억원 ○ 하굿둑 개방 시범 운영 65억원
○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		115	○ 800개소 실태조사(20억원) ○ 25개소 하천 횡단구조물 개선(95억원)
3. 녹색생활공간	0.4조원	0.6조원	
○ 도시숲 조성	1,045	1,557	○ 자녀안심 그린숲 신규 50개소(50억원) ○ 바람길 숲(17개소, 580→800억원) ○ 산단 미세먼지 차단숲(+38개소, 465→707억원)
○ 생활폐기물 친환경 처리	94	283	○ 재활용품 비축창고 ('20) 94 → ('21안) 260(2개소) ○ 에너지융복합 폐기물처리시설 1개소 시범사업(23억원)
○ 가축분뇨처리시설 현대화	1,013	1,103	○ 깨끗한 축사 지정 ('20) 750 → ('21안) 1,000개소
○ 해양 침적 쓰레기 수거	85	108	○ ('20) 4,427 → ('21) 6,000톤
○ 스마트 그린도시		526	○ 25개소(개소당 69.3억원, 연부율 30%)
○ 온실가스 감축설비	41	199	○ 에너지 다소비시설 교체 신규 85억원(34개사) ○ 배출권 할당제 대상 기관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41→87억원, 10개사, 25개 지자체) ○ 목표관리제 대상기업 지원 신규 27억원(30개사)

□ 주요 내용

◇ 미세먼지 저감, 먹는물 수질관리 강화, 각종 폐기물 처리 등을
통해 생활 주변 환경 위해요소를 획기적으로 저감

① 깨끗한 공기 : ('20) 1.0 → ('21) 1.3조원

- (산업)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인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방지시설 설치* 지원 확대 및 첨단장비 기반 감시체계 강화

* 시멘트 12개소(개소당 300억원 용자, 3,600억원), 소규모 사업장(3천개소, 2,200억원)

- (수송) 조기폐차(30→33만대)·DPF(8만대), 화물차·통학차량 LPG
전환(1.6→3.2만대) 등 노후경유차 저공해 조치 확대(0.4→0.5조원)

⇒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12월~3월) 나쁨일수 42→30일(서울 기준),
일최고농도 135→100 $\mu\text{g}/\text{m}^3$ 이하로 관리

② 맑은 물 : ('20) 0.9 → ('21) 1.1조원

- 전국 광역(189억원)·지방상수도(4,246억원, 72개 지자체)에 ICT
기반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0.3→0.4조원) 및 노후상수도 개량(0.5조원)
- 유충 검출 방지를 위해 방충시설 등 정수장 위생관리 강화(신규 262억원)

⇒ ①수돗물 음용률·만족도 제고, ②수질개선(침전물↓, 소독↑), ③유수율 제고

③ 녹색공간 ('20) 0.4 → ('21) 0.6조원

- (도시 그린화) 미세먼지 저감, 열섬현상 완화 등을 위한 도시
숲 조성 확대(1,045→1,557억원)

* ①어린이보호구역 內 자녀안심 그린숲(신규 50개소, 50억원), ②바람길숲
(17개, 580→800억원), ③산단 미세먼지 차단숲 확대(+38개, 465→707억원)

- (국토 대청소) 도시 생활폐기물, 농촌 가축분뇨, 해양쓰레기
등 생활환경 저해요소 처리 지원 확대

* ①재활용품 비축창고(2개소, 94→260억원), 에너지융복합 폐기물처리시설시범 1개소, 23억원
②가축분뇨처리시설 현대화(750→1,000개소), 해양쓰레기 수거(4,427→6천톤)

⇒ 폐기물 「발생→재활용→처리」 등 순과정에 걸쳐 병목현상 해소
→ 발생량·직매립률 ↓, 에너지화 ↑

Ⅱ. 12대 협업예산 중점과제

(기획재정부 담당 : 고용환경예산과, 허성용 사무관, 044-215-7232)

(부처 담당 : 고용노동부, 김유리 서기관, 044-202-7316)

□ 현황

- 신기술 인력수급 전망을 예산에 환류하는 장치가 부족하고, 관계부처 간 협업 및 연계 미흡

□ 협업내용 : 인력수요 분석 + 집중양성트랙 신설 + 역할 분담

- 신기술 분야 미래 인력수요 전망 분석 → 예산 반영

* 각 부처 추천 전문가 T/F 구성('20.2월), 기존 분석 데이터를 활용 분야별-수준별 인력수요 전망 → '20년 공급 대비 과부족 분야 발굴

- 6대 신기술 분야 집중양성 트랙 신설(협업)

* 빅데이터, AI, 스마트제조, 첨단소재, 바이오, 클라우드

- 범용 실무는 고용부, 전문·고급분야는 과기부·산업부·복지부 등으로 역할 분담체계 구축

⇒ ① 인력공급 부족분야 확대

- 고급 인력 전반적 부족 → 고급 인력 양성 30% 이상 확대

② 6대 신기술 분야 집중양성 트랙 신설

- 초·중급(고용부 범용 실무훈련) + 중·고급(과기부+산업부+복지부 등)

③ 사업구조 재편으로 역할 분담

- 범용 실무교육 고용부 중심으로 일원화 + 과기부 등 전문교육 수준 상향

- 기대효과 : ①부처별 기능·전문성에 기반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②인력수요에 맞춘 수요자 중심의 인력양성체계 구축

- 편성결과 : 30개 사업, ('20) 3,777 → ('21) 4,972억원

(기획재정부 담당 : 정보통신예산과, 박성현사무관, 044-215-7397)

(부처 담당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정책과, 정철주무관, 044-205-2708)

□ 현황

- 기존 전자정부에 AI·5G·클라우드 등을 도입하는 디지털 정부 혁신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부처간 행정정보 공유 활성화 필요

□ 협업내용 : 범정부 TF, 워킹그룹 등 정부-민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관·협업부처·예산실 협의로 6개 우선과제* 도출

* ①대국민서비스 혁신, ②공공 마이데이터 활성화, ③시민참여플랫폼 고도화, ④스마트업무환경, ⑤클라우드 활성화, ⑥개방형 데이터·서비스 생태계 구축

- 국민체감 관점의 서비스 통합을 위해 현재 적용가능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추진주체와 도입방식 사전 조정

▪ 국민체감 관점의 서비스 통합

- 40개 국가보조금 수급정보 연계, 연말 100종 증명서 전자발급 확대

▪ 단계별 추진방식 마련, 이용자중심

- 행안부 운전면허증 모바일화 추진, 민간플랫폼(카톡, 네이버 등) 공공정보제공, 5G 기반 대규모 DB 흐름으로 전환

▪ 비용/효율적 신기술 도입방식 마련

- 클라우드통합운영(연 3천억 절감), 범정부 분석툴(차세대 해안) 구축

□ 기대효과 : 개별 부처가 별도 운영중인 사이트를 연계 관리하여 국민생활 편의* 증진하고 공공데이터기반 산업발전 지원

* 기관별 서비스를 국민(수혜자)중심 통합관리, 증명서 비대면 발급·유통 등

□ 편성결과 : 53개 사업, ('20) 3,568 → ('21) 4,424억원

13

부처별로 산재된 데이터 이용창구를 일원화

(기획재정부 담당 : 정보통신예산과, 성인영사무관, 044-215-7397)

(부처 담당 : 과기정통부, 빅데이터진흥과, 이호웅사무관, 044-202-6293)

□ 현황

-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빅데이터를 구축 → 데이터 접근경로 분절 등으로 이용자 불편, 데이터 표준화 곤란

* (공공) 보건의료(4), 농식품(5) 등 22개 기관에서 개별 구축

* (민간) 과기부에서 10대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통합 관리

□ 협업내용 : 각 기관의 개별적 빅데이터 구축 소요를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으로 통합관리 → 이용채널 일원화 및 데이터 표준화

- ❶ 개방·거래 가능한 데이터 →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일원화
- ❷ 영업기밀, 민감정보 등 개방·거래 가능성이 낮은 데이터 → 자체시스템 구축 또는 공용시스템(혜안) 활용

현재 모습		향후 모습
■ [개방·거래가능 데이터] - 제조중소기업·헬스케어·산림경영·기업신용정보 데이터 - 주력업종·해운항만·농업·ODA·북한경제 등 데이터	⇒	■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일원화 - 기 구축된 분야별 플랫폼 확충 (분야별 데이터 생산·수집센터 확충) - 신규 분야별 플랫폼 구축
■ [개방·거래곤란 데이터] - 선거결과, CCTV 등 치안관련정보, 정부·공공기관 민원데이터	⇒	■ (대규모·범용성X) 자체 시스템 구축 ■ (소규모·범용성○) 혜안시스템 활용 * '21년 ISP 추진 검토중

□ 기대효과 : 부처별로 분산되어있는 공공데이터를 융합하여 관리함에 따라 민간에 양질의 데이터 통합 제공 가능

□ 편성결과 : 17개 사업, ('20) 555 → ('21) 984억원

(기획재정부 담당 : 산업중소벤처예산과, 박민정 사무관, 044-215-7311)

(부처 담당 : 산업통상자원부, 송용식 서기관, 044-203-5394)

□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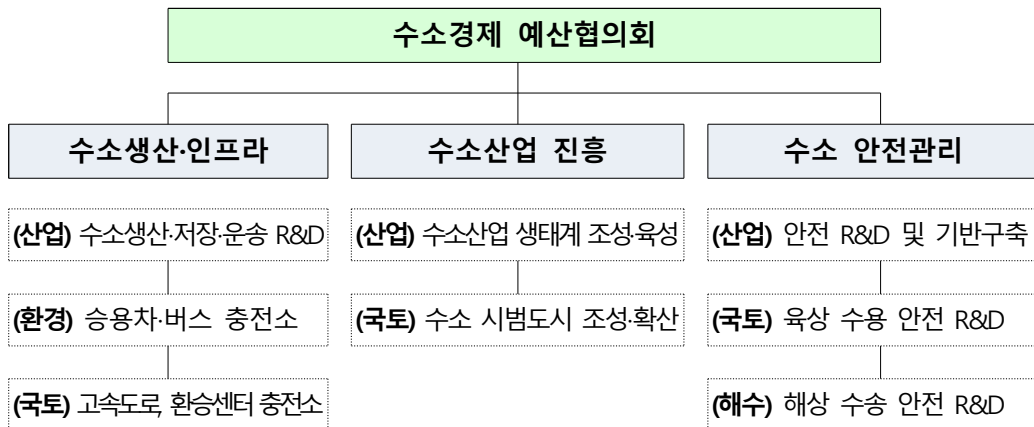
- 수소경제는 4개 부처가 R&D, 인프라 등 분야별*로 지원중으로, 수소경제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체계적 지원체계 구축 필요

* 산업부(생산·기지구축 등), 국토부(시범도시 등), 환경부(수소충전소 등), 해수부(수소선박)

□ 협업내용 : 산업부(생산·유통·산업육성), 국토부·환경부(인프라) 등 관련 부처가 각자의 전문성 등 비교우위에 맞춰 역할분담 및 협업

*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19.1월), 「수소 인프라 및 충전소 구축방안」('19.10월) 발표

- 「수소경제 예산협의회의(가칭)」 구성(즉시) 및 분기별로 개최하여 공동 사업기획·예산요구 등 추진



- 기대효과 : 컨트롤타워(수소경제위원회)에서 부처간 협력을 유도하여 세계 최고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

- 편성결과 : 15개 사업, ('20) 4,297 → ('21) 5,986억원

(기획재정부 담당 : 연구개발예산과, 전형용 사무관, 044-215-7374)

(부처 담당 : 보건복지부, 한정훈 사무관, 044-202-2922)

□ 현황

- 신약·의료기기 실용화까지 많은 절차와 기간이 소요*되어 사업 추진과정에서 부처 간 통합적 지원·관리 필요

* 기초연구 → 임상연구 → 허가·실용화

- **협업내용** : 과기부, 복지부, 산업부 등 부처별 별도로 기획하여 유사중복 및 지원 사각지대가 존재하였으나, 부처간 협업을 통해 공동*으로 기획·집행하여 쏠주기 지원체계 구축

* R&D 공동 사업단을 구성·운영하여 관계부처가 사전에 사업을 공동기획하고, 예산을 공동으로 요구하며 편성한 각 부처의 출연금을 공동사업단에서 집행

- 既 구축된 협력체계인 「범부처 바이오산업 TF」 중심으로 부처간 전문성 공유·활용

협업 이전

부처	사업명	사업내용
과기부	바이오의료기술개발	기초연구 및 비임상연구
복지부	의료기기기술개발	비임상연구 및 임상연구
산업부	-	-
식약처	-	-

⇒

협업 이후

부처	사업명	사업내용
과기부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기초 ↓ 비임상·임상 ↓ 사업화 허가
복지부		
산업부		
식약처		

- **기대효과** : 부처 공동으로 「사업 설계→기획→집행→평가」 쏠주기 지원함으로써 제품개발의 실패위험(Death Valley) 최소화

- **편성결과** : 24개 사업, ('20) 2,077 → ('21) 4,079억원(+91.8%)

(기획재정부 담당 : 연구개발예산과, 김병철 사무관, 044-215-7373)

(부처 담당 : 산업부, 원중필 주무관, 044-203-4304)

□ 현황

- 현재 자율차는 산업부 위주로 부품·센서 등 개발(LV2) → 완전 자율 목표(LV4)하에서는 통신·도로, 제도 등의 통합 개발 필요

* (Lv1) Feet Off → (Lv2, 現단계) Hands Off → (Lv3) Eyes Off → (Lv4) Minds Off

- ⇒ 자율주행차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

* (기간) '21~'27 (사업규모) 1.1조원 (관계기관) 산업부, 과기부, 국토부, 경찰청

□ 협업내용 : 기술-인프라-보급사업 전주기 통합·연계 지원

- 미래차 컨트롤타워로서 「미래차 전략회의」를 통해 부처별 역할에 따라 미래차 개발·보급 쏠주기 지원
- 연구개발, 부품, 통신, 도로, 법제도 등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되도록 관계부처 합동 사업 추진
 - (산업부) 부품·센서 등 기술개발, 표준화 및 테스트베드 구축
 - (과기부) 통신, 보안, 주파수 분배 등
 - (국토부) 도로, 교통기술, 제도 개선 등
 - (경찰청) 신호체계, 교통안전 시설물 등
 - (환경부) 보조금 지급, 충전소 설치 등

- 기대효과 : 「기술-인프라-보급사업」 쏠주기 통합·연계 지원을 통해 '27년 완전자율차(LV4, 전국 주요도로) 상용화 달성

- 편성결과 : 32개 사업, ('20) 14,697 → ('21) 20,046억원

(기획재정부 담당 : 연구개발예산과, 김병철 사무관, 044-215-7373)

(부처 담당 : 산업부, 박성수 사무관, 044-203-4274)

□ 현황

- 「시스템 반도체 비전과 전략」(‘19.4)에 따라 차세대 반도체 공동기획* 등 성장 생태계 조성사업 추진 중

*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 (기간) ‘20~’29 (총사업비) 1조 96억원

- 글로벌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상태에서 분절적 지원으로는 시스템 반도체 성장 생태계 조성에 한계

* 시스템 반도체 국내기업 글로벌 시장 점유율(‘18년) : 3.1%

□ 협업 내용

- 산업생태계 전반의 역량 강화를 위해 ①기술개발, ②인프라, ③인력양성 등 쏠주기에 걸쳐 관계기관 종합지원 추진
- 시스템 반도체 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협업 사업 발굴 및 부처간 역할 조정 등 재정투자 효율화 추진
 - 산업부-과기부-중기부간 정책협의체를 통해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필요사업 공동 기획·집행 추진

□ 기대 효과

- 관련 분야 협업을 바탕으로 핵심기술 확보, 인력 양성 등을 통해 메모리 중심에서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

* 팹리스 글로벌시장 점유율 : (‘18) 1.6% → (‘30) 10%

파운드리 : (‘18) 16% → (‘30) 35%

- **편성결과 : 21개 사업, (‘20) 3,400 → (‘21) 3,530억원**

(기획재정부 담당 : 연구개발예산과, 김병철 사무관, 044-215-7373)
(부처 담당 : 산업부, 정두식 사무관, 044-203-4915)

□ 현황

- 日 수출규제*('19.7) 이후 소부장 경쟁력 강화대책 등을 통해 **100개** 핵심품목을 선정하여 공급 안정화 추진중

* 불산, 불화 폴리이미드, EUV 레지스트 등 3개 품목

□ 협업내용 : 소부장경쟁력위원회*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부처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이어달리기 등 협업 사업 추진

* 소부장경쟁력위원회 내 협업 프로젝트 분과를 신설하고 R&D, 기반구축 사업 등을 전체적 시각에서 통합·조정

- 부처간 역할분담을 명확히 구분하고 연구개발단계를 고려한 협업 수행범위 설정

* (과기부) 기초원천(TRL 1~3) 중점수행 (산업부) 응용·상용화(TRL 4~8) 수행 (중기부) 中企 소규모·단기상용화(TRL 7~8)

- 협업을 필요한 **25개** 품목을 선정하여 이어달리기 등 추진

- 이어달리기 : 기초원천(과기부) 이후 상용화(산업부) 기술 개발이 단계적으로 필요한 **20개 품목*** 연계지원

* 초박막 메타렌즈 : 과기부에서 개발한 원천기술을 산업부에서 상용화 통해 국산화

- 함께달리기 : 기초·원천·응용·상용화가 동시에 추진 가능한 **5개 품목***을 선정하여 신속 지원

* 산화 알루미늄 : 핵심소재와 상용화 위한 기술을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가 동시에 개발하여 사업기간 단축

□ 기대효과 : 품목별로 기초-응용-사업화 R&D 패키지 예산편성 및 환류를 통해 사업 효과성 제고 및 기술자립화 조기 달성

□ 편성결과 : 3개 사업, ('20) 148 → ('21) 611억원

(기획재정부 담당 : 교육예산과, 권혁순 사무관, 044-215-7252)

(부처 담당 : 교육부, 윤갑천 사무관, 044-203-6183)

□ 현황

- 디지털+그린뉴딜의 일환으로 금번 추경에 전국 국립 초·중·고교 “그린스마트 학교” 전환 시범사업 반영

- 교육부 사업으로 추진중이나, 디지털(과기부), 친환경(산업부·환경부) 등 부처의 전문성 활용을 위한 협업 필요

□ 협업내용 : 노후 학교시설의 공간혁신·온라인교육·제로에너지 전환 모델을 과기부(디지털), 산업부(신재생에너지) 등 협업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

* 개선이 시급한 노후건물 2,835동, BTL(25%) 및 재정사업(75%) 병행추진

- ‘뉴딜추진기획단’을 통해 부처간 전문성 공유·활용

- 학생·교사·민간 건축전문가 등 수요·의견 수렴 및 혁신·창의 교육을 위한 공간혁신요소 가미 추진

⇒ 다기능 역할 수립·구현을 위한 사업계획*은 부처 공동으로 마련

* 그린스마트 스쿨 우수 선도모델 개발

- BTL 등 집행상 애로사항 청취·논의 병행 → 차질 없이 진행 되도록 부처간 협의 추진

* 실무차원에서도 관계부처 및 교육청과의 협의 진행

□ 기대효과 : 개선이 시급한 노후 초중고교 건물을 친환경·디지털 미래학교로 전환하는 사업을 향후 5년 내 신속히 완료

□ 편성결과 : 교육부·관계부처·교육청간 지속 논의를 통해 물량·단가, 사업 추진방식 및 국가-지방교육청간 재원분담 등 결정

- 1개 사업(교육부,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21 868억원(신규)

* BTL 물량은 민자로 진행, 임대료(원리금) 상환은 '23년부터 실시

(기획재정부 담당 : 복지에산과, 박병선 사무관, 044-215-7513)

(부처 담당 : 여성가족부, 신경식 서기관, 02-2100-6392)

□ 현황

- 기술발전과 더불어 텔레그램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가 폐쇄성 높은 해외 플랫폼으로 옮겨가며 악성 진화 계속

- 기술과 결합하여 피해가 확대되고 복잡한 양상을 띠는 특성상 범정부 협업체계를 통한 강력한 대응 필요

□ 협업내용 : 「인식개선-유포차단-단속·수사-피해자 지원」 단계별 유기적 대응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20.4월) 하여 디지털 성범죄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투자 확대

단계	부처	기능분담	추진사업
인식 개선	교육부	▪ 학교 내 성범죄 근절	▪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여가부	▪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 사회전반 인식 제고	▪ 디지털 성범죄 예방 콘텐츠 제작·보급 및 인식개선 홍보
↓			
유포 차단	과기부	▪ 디지털 성범죄 차단 기술 개발	▪ 딥페이크 탐지 고도화 기술개발 등 ▪ 인공지능 기반 유포미디어 차단기술 개발
	방통위	▪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 책임강화	▪ 웹하드 등 상시점검체계 강화
↓			
단속 수사	경찰청	▪ 온라인 성착취 범죄 수사 강화	▪ 무선 IP카메라 탐지기 및 가상화폐 추적프로그램 신규 도입 등
↓			
피해자 지원	여가부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 24시간 피해자 상담·삭제지원 ▪ 7개 광역지역 특화프로그램 운영
	방통위	▪ 불법영상물 심의 절차 간소화	▪ 24시간 상황실 운영 등 신속대응체계 구축

- 기대효과 : ❶ 디지털 성범죄 예방 홍보·교육 강화, ❷ AI 활용 검색기능 강화, ❸ 수사·대응강화, ❹ 24시간 상담·삭제지원

- 편성결과 : 17개 사업, ('20) 131 → ('21) 221억원

(기획재정부 담당 : 복지에산과, 김형은 사무관, 044-215-7512)

(부처 담당 : 보건복지부, 배태현 사무관, 044-202-3381)

□ 현황

-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 발생하면서 학대 위기·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범정부 협업 필요성 제기

* 아동학대 건수 : ('13) 6,796 → ('15) 11,715 → ('17) 22,367 → ('18) 24,604

□ 협업내용 : 아동 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사후관리까지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원 부족한 부분에 대한 투자 확대

단계	부처	기능분담	추진사업
학대 예방	복지부	· 아동학대 대국민 인식제고 및 콘텐츠 개발	· 연령별, 대상별(교직원, 의료인, 부모 등) 맞춤형 학대예방 홍보·교육 콘텐츠 개발
↓			
조기 발견	복지부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위기아동 조기 발견	· 위기아동 예측률 제고를 위한 e행복아동 시스템 고도화
↓			
초기 대응	기재부	· 학대피해아동쉼터 확대	·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확대 ('20년 76→'21년 86개소)
	지자체	· 경찰 동행 현장출동·조사 하여 피해아동 보호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체 시군구 배치
	복지부·법무부	· 아동학대 조사·대응 관계자 전문교육 실시	· 피해아동 보호 결정 지원하는 사례위원회 설치 · 관련기관 종사자 아동학대 사례·법지식교육
	경찰청	· 아동학대 신고시 현장 출동·조사	· CCTV 저장장치 지원(273개 경찰서)
↓			
보호·지원	복지부·법무부	· 아동보호전문기관 인프라 확대 및 서비스 질 개선	·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20년 71 → '21년 81개소) 및 상담·심리치료 전담인력 지원(51명)
↓			
재발방지 사후관리	경찰청	· 고위험 가구 모니터링	· 위험가구 주기적 방문을 통한 모니터링강화
	복지부	· 원가정 분리아동 사후관리	· 아동보호전담요원 전체 시군구 배치
	여가부	· 청소년 쉼터 보호아동 지원	· 청소년 쉼터 청소년들의 자립활동비(50/원) 및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수당(30/월 3년간) 지원

□ 기대효과 :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부처별 연계하여 위기아동 조기발견 및 아동보호체계 공공화 지원

□ 편성결과 : 12개 사업, ('20) 347 → ('21) 485억원

(기획재정부 담당 : 산업중소벤처예산과, 박민정 사무관, 044-215-7311)

(부처 담당 : 산업통상자원부, 이재형 사무관, 044-203-4432)

□ 현황

- 산단대개조 대상 **5개 지역***을 선정하고 '21년부터 예산 반영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중

* 경북(구미국가산단), 광주(광주첨단국가산단), 대구(성서일반산단),
인천(남동국가산단), 전남(여수국가산단)

- 개별산단 중심 부처별 정책으로는 지역 전반의 산업 및 자원, 혁신전략과의 연계에 한계

□ 협업내용 : 지역 중심으로 「산단 혁신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협업예산의 형태로 범부처 패키지 지원*

* ①산단 스마트화·제조혁신(산업·중기부) + ②환경개선(국토·산업·환경부·산림청) +
③창업·인력·고용·문화여건 제고(중기·고용·여가·문체부 등) 등 다부처 융합 지원

- 부처 공동으로 다부처 협업·연계가 필요한 **메뉴판 사업**을 발굴·지역에 제시하고, 지역은 원하는 사업을 선택하여 예산 요구

□ 기대효과 : 다부처 연계 산단 혁신사업 추진으로 부처간 중복 사업 방지 및 지역 수요 맞춤형 사업 반영

□ 편성결과 : 41개 사업, ('20) 15,797 → ('21) 16,640억원

Ⅲ. 주요 패키지 예산

(기획재정부 담당 : 산업중소벤처예산과, 하치승 사무관, 044-215-7316)

(부처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홍명기 서기관, 042-481-4384)

□ 예산 : ('20) 620억원 → ('21) 4,924억원(+ 4,304억원, 694%)

□ 주요 내용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디지털 중심 소비행태가 가속화됨에 따라, 디지털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상공인 디지털 경쟁력 제고 필요

< 소상공인 스마트化 3종 세트 >

- ①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20) 16.5 → ('21) 220억원
: 소상공인 사업장에 서빙로봇, 스마트 미러, 온라인 비대면 주문 시스템 등 스마트기술 도입 지원('21년 23,000개사)
- ②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20) 40 → ('21) 294억원
: 10인 미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대상 기초단계의 스마트 기술 도입 지원('21년 600개사)
- ③ **스마트슈퍼 지원** (신규) 84억원
: 무인점포 운영이 가능한 스마트슈퍼 확산 지원('21년 800개사)

< 소상공인 디지털 생태계 조성 >

- ④ **스마트 소상공인 지원자금** (신규) 3,000억원
: 스마트 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영안정을 위해 자금 지원
* 스마트상점, 스마트공방, 디지털 마케팅 소상공인(온라인 진출지원 참여업체) 등
- ⑤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20) 313 → ('21) 734억원
: O2O융합기획전*, 스마트 플래그십스토어(2개소), 구독경제화 지원(年 5천건) 등 온라인시장 진출 쏠주기 지원
*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기획전과 오프라인 행사장 판매 병행(크리스마스마켓)

⑥ **AI 기반 상권정보시스템** ('20) 28 → ('21) 33억원
: 소상공인의 데이터 기반 경영혁신을 위한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⑦ **소상공인 전용 간편결제시스템 확산** ('20) 102 → ('21) 136억원
: 제로페이용 디지털 결제 인프라 확충*을 통한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 QR키트 100만개(누적) 보급 물량, QR단말기 16만개, 전통시장 무선단말기 6만개(신규)

< 전통시장 디지털 격차 해소 · 특성화 지원 >

⑧ **전통시장 디지털 매니저** ('20) 7.6(추경) → ('21) 24억원
: 전통시장과 온라인 전문인력(디지털 매니저)을 매칭하여 '온라인
장보기'와 '전국 배송형' 등 온라인 진출지원

⑨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발행** (신규) 230억원
: 전통시장·상점가 내 소상공인 간편결제 가맹점 확산을 위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2,000억원 발행**(상시 10% 할인)

⑩ **상권활성화(상권 르네상스)** ('20) 113 → ('21) 169억원
: 전통시장 신규고객 유입을 위한 테마형 마케팅을 지원하는
상권르네상스 사업 지원 확대(13→19곳)

□ 기대효과

- 소상공인에게 직접 와닿는 디지털 전환 **선도모델**을 확립하여 전체
소상공인의 자발적인 디지털화 유도
- 스마트기술 공급 기업, 온라인판매 플랫폼, 데이터 비즈니스 기업
등과의 협력을 통해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소상공인 지원

※ 소상공인 스마트화 우수 사례

* 대구의 **D** 치킨집은 튀김로봇을 도입해 조리과정에서 위험성을 줄이고 일정한
맛을 유지하여 고객수 3배 증가 → 월 매출 2,000만원, 고용인원 2명 증가

* 인천의 **P** 피자집은 서빙로봇 및 테이블 오더를 도입하여 고객 만족도 증가,
3D 프린터 활용 장난감을 제작·제공 → 매출 4배 확대, 고용인원 5명 증가

(기획재정부 담당 : 산업중소벤처예산과, 정민철 사무관, 044-215-7312)

(부처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윤성웅 사무관, 042-481-4382)

□ 규모(예산) : ('20) 19.7조원(85,701억원) → ('21) 34.5조원(117,362억원)

□ 주요 내용

◇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자금을 공급하여, 양질의 일자리 유지 및 성장 촉진 지원

< 투자규모(예산) > 2.8조원(11,390억원) → 3.7조원(12,993억원)

① 모태펀드 출자 ('20예산) 11,390 → ('21예산안) 12,993억원

: 유망 분야 기업 지원 스마트대한민국 펀드*, 버팀목 펀드** 등
모태펀드 3.7조원 조성(회수재원 투자 포함)

* AI, 5G, 빅데이터 등 비대면·바이오·그린 분야 중점 투자 모태펀드(~'25. 6조원)

** 유통서비스, 전기·기계 등 코로나19로 경영난에 처한 소외분야 중점 투자 펀드

< 융자규모 > 6.9조원(68,900) → 9.3조원(92,900억원)

② 중소기업 정책자금 ('20예산) 45,900억원 → ('21예산안) 56,900억원

: 내년도 경기 불확실성 확대 고려하여, 5.7조원 공급(+1.1조원)

구분	'20년	'21년	비고
혁신창업사업화	25,500	24,500	비대면 분야 및 유망 기술창업기업 지속 지원
투융자복합금융	2,000	1,400	기업공개(PO) 예정기업 등 성장 유망기업 발굴 지원
신성장기반자금	13,300	17,500	시설투자 및 스마트팩토리 구축 지원 확대
신시장지출지원	2,000	5,000	브랜드 인증기업 수출 및 비대면 온라인 수출 지원
간접경영안정자금	1,000	5,000	긴급 유동성 지원기업 수 5배 이상 확대
재도약지원자금	2,100	3,500	선제적 구조조정 및 사업구조 개편과 재도약 지원

- ③ **소상공인 정책자금** ('20예산) 23,000억원 → ('21예산안) 36,000억원
: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3.6조원** 공급(+1.3조원)

구분	'20년	'21년	비고
일반경영안정자금	15,500	13,000	일반 소상공인 지원
특별경영안정자금	-	10,000	장애인, 청년, 재난재해 소상공인 등 지원(내역 분리)
성장기반자금	7,500	10,000	소상공인 시설자금, 소공인 특화자금 지원
스마트지원 자금지원	-	3,000	스마트 상점·공방, 온라인 진출 지원(내역 신설)

< 보증공급(예산) > **10조원**(5,411억원) → **21.5조원**(11,469억원)

- ④ **신용보증재단 보증** ('20예산) 2,700 → ('21예산안) 4,600억원
: 소부장 기업 특례보증 7,500억원 등 中企·소상공인 보증
뒷받침 예산 **4,600억원** 반영
- ⑤ **기술보증재단 보증** ('20예산) 1,700 → ('21예산안) 4,500억원
: 언택트 기업 6,000억원, 스마트제조서비스 4,000억원 등 中企
보증 12,500억원 뒷받침 예산 **4,500억원** 반영
- ⑥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20예산) 1,011 → ('21예산안) 2,369억원
: 소상공인 보증규모 19.5조원 확대를 위한 예산 **2,369억원** 반영

□ 기대효과

- **(혁신성장 지원)** 비대면 분야 등 유망 신산업, 수출기업 등을 집중 육성하고, 제조현장 스마트화를 촉진하여 혁신성장 지원
- **(경영위기 극복)**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위기 기업 유동성 공급 확대 및 선제적 사업 구조개편·재도약 지원

지원우수사례(㈜프론 ○ ○('01년 설립, VR·AR 활용 제품화 서비스 제공))

- * (지원내용) (신시장자금('18년)) 2.5억원(미국, 태국 수출지원) → (신성장자금('19년)) 6억원(자가사업장 매입 지원) → (긴급경안자금('20년)) 5억원(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
- * (지원성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산업 영위기업 지원을 통한 매출액·고용 증대
- (매출액) ('18) 122억원 → ('20) 200억원(예상), (고용) ('18) 44명 → ('20) 7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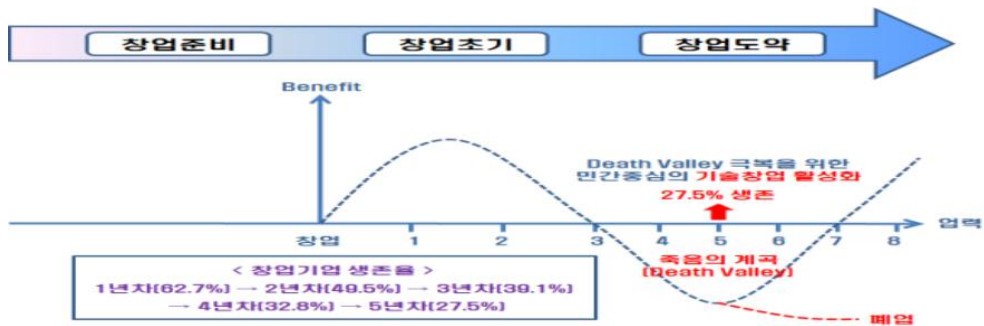
(기획재정부 담당 : 산업중소벤처예산과, 정민철 사무관, 044-215-7312)

(부처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민승주 사무관, 042-481-4426)

□ 예산 : ('20) 8,128억 원 → ('21) 9,027억 원(+899억원, 11.1%)

□ 주요 내용

◇ 예비(창업이전), 초기(3년 이내), 도약(3~7년차) 등 창업기업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혁신 창업·벤처기업 생태계 활성화



구분	창업준비	창업초기	창업도약	성 장
정책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저변 확대를 통한 창업마인드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을 통한 창업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죽음의 계곡 극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을 통해 중기업으로 육성
주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창업패키지 기업가정신 확산 실전창업교육 멘토링플랫폼운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기창업패키지 1인창조기업 활성화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도약패키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아기유니콘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내벤처 육성 창업성공패키지 창업 인프라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관협력창업자육성 창업생태계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도전 K-스타트업 			-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에 관심을 가진 학생, 일반인 및 예비창업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3년 이내 창업 초기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7년 이내 창업기업 	-

❶ **창업저변확대** ('20) 529 → ('21) 458억원

: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 개최 등 생태계 위상 강화

- 스타트업 해외 5대 전시회 지원 : (신규) 144개사
-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경진대회 개최 : (신규) 10개팀

❷ **창업사업화지원** ('20) 4,008 → ('21) 4,462억원

: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및 혁신 분야 창업패키지 확대

- 의료, 교육 등 비대면 분야 전용 창업지원 프로그램 : (신규) 200개사
- 글로벌 대기업(구글, 엔비디아 등) 연계 프로그램 : (신규) 200개사

❸ **민관협력창업자육성** ('20) 864 → ('21) 1,024억원

: 민간투자자와 정부R&D를 연계하여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 활성화

- TIPS 선정팀 연계지원(사업화, 해외마케팅) 강화 : ('20)321개 → ('21)395개
- 아기유니콘 200 육성 : ('20)40개 → ('21)60개

❹ **창업성공패키지** ('20) 1,041 → ('21) 1,041억원

: '준비-실행-성장' 등 창업 쏠단계 패키지방식 일괄지원

-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지원 분야 확대 : ('20)1분야(AI) → ('21)3분야(D.N.A)

❺ **창업생태계 기반구축** ('20) 1,023 → ('21) 1,261억원

: 혁신 창업 활동을 위한 인프라 지속 확충

- 스타트업 파크 조성 : ('20) 설계 → ('21) 2개소

※ 청년 창업지원 : 창업기업지원서비스바우처(173억원), 청년창업사관학교(932억원)

□ 기대효과

- 민간 주도의 창업생태계 확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

- ◆ (민관협력창업자육성) 2,538개 일자리 창출 : 668개사 × 3.8명
- ◆ (창업사업화지원) 18,225개 일자리 창출 : 4,796개사 × 3.8명

(기획재정부 담당 : 산업중소벤처예산과, 하치승 사무관, 044-215-7316)

(부처 담당 : 산업통상자원부, 진성익 사무관, 044-203-4093)

□ 예산 : ('20) 1,411억원 → ('21) 2,075억원(+664억원, 47.1%)

□ 주요 내용

◇ 코로나-19, 미·중 무역분쟁 등 글로벌 충격으로 유발된 GVC 재편에 대응하여 미래형 첨단산업 유치를 통한 첨단산업 세계공장化 추진

< 투자유치 >

① **국내복귀투자보조(유턴 보조금)** ('20) 200 → ('21) 500억원
: 국내복귀 투자에 대한 투자액(입지·설비), 이전비용 등 지원

* 보조금 지급 목표 기업 수 확대 : ('20)5개(예상) → ('21)12개
기업당 평균 투자보조금 지급액 상향 : ('20)30억 → ('21)50억
지원대상 : 비수도권 → 전국 (수도권은 첨단·R&D센터 限)

② **외투기업 현금지원** ('20) 550 → ('21) 600억원
: 고도기술 수반, 고용창출, 지역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투기업 지원(지원비율 확대 반영하여 +50억원 증액)

③ **임대료 지원** ('20) 73 → ('21) 106억원
: 지식서비스산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형 외투기업 임대료 지원(글로벌항공제조 B社 글로벌R&D센터(신규) 등)

④ **유턴기업 고용창출장려금** ('20) 11 → ('21) 22억원
: 유턴기업 신규 고용 창출시 인건비 보조(200→ 400명)

⑤ **투자유치활동 지원**
: 우수 해외기업 대상 IR 확대(4→ 10회), 유턴기업 원스톱 지원 데스크 확대(6→ 8개소) 등 전방위적 투자유치활동 강화

< 인재유치 >

⑥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20) 44 → ('21) 43억원

: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세계 200위 이내 대학 등 세계 우수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 지원

- (운영지원) 스탠포드 연구센터(신규, '20년말 개소) 등 4개 기관
초기운영비 지원
- (인프라) 인천 송도글로벌캠퍼스 내 해외대학 공동기숙사(신규)

< 공동R&D 지원 >

⑦ **국가간협력기반조성(R&D)** ('20) 411 → ('21) 505억원

: 과학기술 외교협력(국가 간 협력 및 국제기구 등)을 통한
지속적인 국제교류 및 공동연구 확대

- (KAIST·GIST-MIT 공동연구) GIST&KAIST의 AI대학원과
세계 정상급 AI연구 수행중인 MIT와 공동연구(40억원, 신규)

□ 기대효과

- **GVC 재편에 대응하여** 첨단산업 투자유치 및 유턴을 통한
세계적 제조업 클러스터 조성

유턴보조금 지급한도 확대(수도권 150억원, 지방 300억원) 등 제도개선 후 투자유치

- * (유턴기업) 6~8월 간 유턴기업 7개 신규 선정되고, 車부품·화학 등 주력
업종·중견기업 증가하는 등 기업 유턴의 양적·질적 증가

(유턴기업 선정 : ('17) 4개 → ('18) 9개 → ('19) 16개 / ('20) 14개(6~8월 중 7개))

- * (외투기업) 이차전지 양극재 생산업체인 U社の 아시아 최대 R&D 센터 등
첨단산업·R&D센터 유치 확대

- 첨단기업·R&D 센터 위주 유치를 통한 고도기술 확보 및
양질의 국내 일자리 창출

* 유턴기업 '14~'17년간 지원액은 179억원으로 1억원당 同 기간중 5.4개의 일자리 창출

(기획재정부 담당 : 예산관리과, 김진수 사무관, 044-215-7199)

(부처 담당 : 조달청, 박상수 사무관, 042-724-7347)

□ 예산 : ('20) 134억원 → ('21) 556억원(+422억원, 315%)

□ 주요 내용

◇ 기술혁신의 마중물 역할을 할 혁신제품에 대한 공공구매를 확대하고 민간 시범사용을 지원 → 혁신제품 시장 창출

① 혁신제품 시범구매 대폭 확대 ('20년 99 → '21년 500억원)

: 정부가 혁신제품의 '첫 번째 구매자'가 되어 실험실에 머물러 있던 기술을 상용화하고 초기판로 개척

- 시범구매사업 운영부처 확대 : 조달청('20) → 조달청, 중기부, 과기부, 환경부, 해수부 5개 부처('21)
- 대상제품 확대 : 200개('20) → 300개 이상('21)
- 테스트기관 수 확대 : 제품당 1.25개('20) → 3개 기관('21)

② 혁신 의료기기 민간테스트 확대 ('20년 35 → '21년 56억원)

: 의료진의 혁신 의료SW·의료기기 시범사용을 지원하여, 국산 의료기기에 대한 편견을 완화하고 초기시장 창출

- AI 폐암진단 SW 보급 : 폐암검진기관 100개소 보급(신규)
- 테스트·컨설팅 대상 제품 확대 : 29개('20) → 35개('21)
- 병원내 혁신의료기기 교육훈련센터 운영 : 2개소

□ 기대효과

- 공공·민간영역에서 사용경험 확대 → 혁신제품 시장 확산

* 공공기관 시범사용 후 타기관 본구매로 이어진 사례 : 안전이 강조된 LED 바닥형 보행신호 보조장치(5건, 5.1억원), 인공지능 스마트 IoT 에어컨(6건, 5.8억원)

(기획재정부 담당 : 교육예산과, 신경아·권혁순·곽인수 사무관 044-215-7251/7252/7255)

(부처 담당: 교육부, 박창원 서기관, 이규성 라수람 김은마 조의정 사무관 044-215-6252/6255/6475/6386/6653)

□ 예산 : ('20) 284억원 → ('21) 1,316억원 (+1,032억원, 363.4%)

□ 주요 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강의 등 원격교육 중요성 확대 및 온·오프라인 수업 병행 필요성 제고

- (초·중·고) 수준별 교육콘텐츠 개발·학습진단 → 맞춤형 교육서비스 제공
- (대학) 대학 원격교육 및 일반국민 온라인 평생교육 활성화
- (취약계층) 성인학습자(바우처) 및 장애학생 지원 확대 → 교육격차 해소
- (교원) 현직·예비교원 대상 원격교육 관련 교수학습법 개발 및 제공

① 초·중·고 온라인 원격교육 지원 (신규) 450억원

-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수준별 교육콘텐츠 개발 : 17,908편
* (영유아·학부모) 1,248편, (초등) 2,550편, (중등) 1,650편, (고등) 12,460편
- 개인별 학습수준 진단을 위한 수준별 문항개발 : 26만 문항
→ 맞춤형 학습가이드 제공을 통한 학력격차 완화

② 대학 온라인 강의 지원 ('20) 250 → ('21) 614억원

-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 : 권역별 1개소, 총 10개 권역 지원
* 권역별 LMS 운영으로 지역 대학의 온라인 강의 관리·운영 지원
일부 공통과목(기초학문, 공통교양 등)은 권역별로 공동 개발·공유
- K-MOOC : 대학생·일반인 등 무료 온라인 강의 전문화&다양화 지원, 기업이 원하는 인재양성 위해 기업-대학 공동 강좌 개설
* (대학) K-MOOC 강좌 단계적 확대 : ('20.9) 745강좌, ('25) 1,055강좌(누적)
(기업) 매치업 확대: 기업이 원하는 인재 양성 콘텐츠 확대(32→48강좌)
(일반) 해외 유명강좌(年 50건) 및 국내외 석학 강좌 제작·보급(年 30건)

- 다양한 연구활동에 필수적이고 권위 있는 학술 DB를 누구에게나 무료로 제공 : 단계적 투자 확대 (핵심* 5배, 일반** 2배)

* 세계 5대 출판사 전자저널 구독 : ('20) 1종(40억) → ('21) 2종(80억) → ('24) 5종(200억)

** 기타 저널 확대 : ('20) 38종(75억) → ('21)46종(92억) → ('25)76종(152억)

③ 취약계층 온라인 학습 지원 ('20) 34 → ('21) 173억원

- 저소득층 대상 바우처 지원 확대 → 성인학습 교육격차 해소 : 지원인원 및 개인별 지원금액 인상

* 인원: ('20) 8,000 → ('21) 15,000명 / 지원금액: 1인 年 ('20) 32 → ('21) 42만원

- 장애학생 원격교육 인프라 지원 : 플랫폼* 및 스튜디오 구축 (신규)

* 실시간 수업(출석, 음성, 자막·수어 지원 등)이 가능한 LMS 기능 포함

- 장애유형별(시각·청각·발달·지체 등) 맞춤형 콘텐츠 제작 : 총 69종 (신규)

* 발달장애 기본교육과정(10종), 지체·발달장애 실감형 자료(53종), 청각장애 음성인식 프로그램(1종), 체험교실·버스(30개, 1대), 장애학생 부모교육 콘텐츠(5종)

- 장애대학생 수업환경 제고 위한 보조공학기기 공급 (신규)
: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우수 대학 100개교 지원

④ 교원양성기관 원격교육 지원 (신규) 79억원

- 미래교육센터 설치 : 국립 교·사대 18개교 지원('20추경 10개소)

□ 기대효과 : 원격교육 역량강화 및 디지털 격차 해소

- 수준별 교육콘텐츠 개발·제작 및 AI 학습진단·컨설팅 제공
→ 개인 맞춤형 학습가이드 제공
- 고등교육 분야 온라인 강의 지원 확대 → 대학(학생, 연구자 등)·기업·일반 국민들의 수요에 맞는 평생학습 지원
- 저소득층 및 장애학생 등 취약계층 대상 온라인 원격교육 지원 강화 → 소득수준에 따른 디지털 격차 해소
- 교원(현직·예비)의 원격교육 역량 강화 → 공교육 질 제고

(기획재정부 담당 : 문화예산과, 김낙현 사무관, 044-215-72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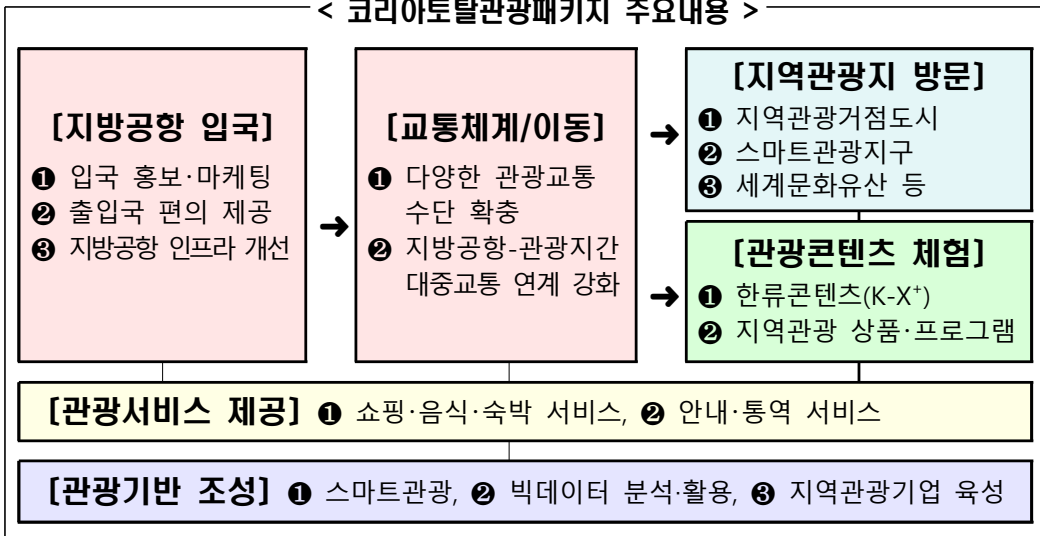
(부처 담당 : 문체부 관광정책과, 이성은 서기관, 044-203-2812)

□ 예산 : ('20) 1,804억원 → ('21) 2,354억원(+537억원, 29.5%)

□ 주요 내용

- ◇ 지방공항으로 입국한 외래객에게 권역內 교통·숙박·볼거리·먹을거리·즐길거리 등을 동선*에 따라 빈틈없이 연계·제공
- * (예) ①공항입국 → 이동 → ②관광콘텐츠 체험(K-Pop 등) → 이동 → ③숙박 → 이동 → ④지역관광지 → 이동 → ⑤음식 → 이동 → ⑥쇼핑 → ⑦공항출국
- ◇ '21년 예산안에 10개 부처* 소관 63개 사업에 대해 2,354억원 규모로 다부처* 융합예산 편성 → 2개 권역 공모 선정 예정
- * 문체부, 문화재청, 농식품부, 해수부, 국토부, 복지부, 법무부, 중기부 등

< 코리아토탈관광패키지 주요내용 >



① 지방공항 입국 및 이동(교통수단 개선) ('20) 106 → ('21) 212억원

- 지방공항 취항노선 확대, 공항 출입국 편의 제공(휴대품 모바일 전자신고 등), 지방공항 內 종합관광안내센터 설치(50→90억원)
- 시티투어버스 등 관광교통수단 확충 및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공 확대(20→31억원)

* 시내버스·지하철內 다국어 안내표지 설치, 모바일 교통정보(노선 등) 제공 등

② **지역관광지 방문** ('20) 244 → ('21) 555억원

- 관광거점도시(5개소, 159→383억원) 및 스마트관광도시 육성(1→4개소, 45→132억원)

③ **관광콘텐츠 체험** ('20) 822 → ('21) 934억원

- 한류콘텐츠(K-pop, k-Drama, K-Food, K-Beauty) 확충(72→118억원)
- 지방공항 연계 공연관광(36→42억원), 문화유산관광(176→225억원), 걷기여행길 활성화(22→33억원) 등 관광상품 개발

④ **관광서비스 제공 및 관광기반 조성** ('20) 632 → ('21) 653억원

- ICT기술 활용 스마트쇼핑*(12→30억원), 지역특화 숙박시설 조성(20억원, 신규), 지역관광기업(관광두레) 육성(100→126억원) 등

* 위치기반 맞춤형 지역쇼핑정보 제공, 가상쇼핑체험 서비스 제공 및 쇼핑결제 편의(Pre-paid 웨어러블 팔찌, 모바일 간편결제 등), 짐배송 서비스 등

□ **기대효과**

- 지역의 인프라(지방공항 등), 콘텐츠(볼거리·즐길거리), 서비스(쇼핑·숙박·안내) 확충 → 외래객 지역분산을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 → '21년 이후 외래객 지역방문을 제고('19년 49% → '21년 50%)
- 다부처 융합예산 편성을 통해 시너지 창출효과 제고

— < 동선에 따른 외래객 관광사례 > —

◇ 지방공항으로 입국한 외래객이 교통수단을 통해 지역관광지·숙소 등으로 이동하면서 불편없이 관광콘텐츠 체험 및 관광서비스 이용

* (○○공항 입국 20대 대만 여성관광객 사례) BTS를 좋아하는 한류팬으로 K-Pop 콘서트 참석 등을 위해 ○○공항 직항편을 이용해 ○○시를 2박3일 일정으로 방문

① (지방공항입국) 입국환대주간 특가 항공티켓을 구매해 직항노선으로 입국, 휴대폰 모바일 세관신고 이용 → ② (이동) 지방공항 종합관광안내센터에서 개인번호에 맞는 맞춤형 관광지 추천·예약, 공항~관광지로 바로 연결되는 시티투어버스 이용, 이동중 버스내 다국어 노선정보 확인 → ③ (관광콘텐츠 체험) 지역내 K-Pop 공연장 방문 및 미리 예약한 외국인전용석 입장, 인근 관광거점도시 내 문화유산 연계 관광상품 이용, 스마트투어가이드를 통해 관광지 해설 청취 → ④ (음식) 모바일 식당추천서비스 이용, 원하는 메뉴 선택 후 도보로 식당 이동 → ⑤ (숙박) 한국적 특색을 가진 관광숙박시설을 모바일로 예약·이용 → ⑥ (지방공항출국) 짐배송 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관광택시를 타고 공항이동 및 출국

(기획재정부 담당 : 문화예산과, 성기웅 사무관, 044-215-7271)

□ 예산 : ('20) 4,876억원 → ('21) 6,961억원(+2,085억원, 42.8%)

□ 주요 내용

◇ 최근 BTS·기생충 등 한류 재확산 분위기 속에서 K-방역, 무관중 스포츠중계 등 신속하고 창의적인 대응에 세계가 주목
→ K-문화, K-방역, K-건축 등 한국의 우수한 대표 정책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한류 확산 적극 지원

① K-문화(K-Culture) ('20) 1,137 → ('21) 1,900억원(+763억원)

: 신한류 확산을 통해 문화와 경제를 견인하고 국가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촉매제 역할 수행

- 실감형 콘텐츠 등 한류 콘텐츠 다양화 : ('20) 167 → ('21) 238억원
 - * 해외 실감콘텐츠 체험관 조성(4개소, 40→60억원) 등
- 온라인·비대면 방식 한류 확산 : ('20) 4 → ('21) 340억원
 - * 온라인 K-Pop 공연장(1개, 신규 290억원), 온라인 공연·전시(4→50억원) 등
- 소비재·관광 등 연관산업 동반진출 : ('20) 193 → ('21) 209억원
 - * K-Pop 및 K-Drama 연계 한류관광 활성화(62→90억원)
- 해외현지 한류프로그램 및 전략적 한류 홍보 : ('20) 323 → ('21) 530억원
 - * 재외문화원 한국문화제 개최(10개국, 신규 80억원),
재외문화원 외벽 미디어파사드 설치(7개소, 신규 100억원) 등

② K-방역 ('20) 2,516억원 → ('21) 3,440억원(+924억원)

: 방역 분야 글로벌 선도 및 해외진출 촉진

-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및 국제수준 시험인프라 구축 : (신규)63억원
- 해외진출 연계 보건의료 ODA 확대 : ('20) 2,488 → ('21) 3,327억원
 - * 해외 감염병 병원 등 인프라 건설, 의료기기·백신치료제 보급 등

③ **브랜드K** ('20) 1,116억원 → ('21) 1,355억원(+239억원)

: 세계로 진출하는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육성

- 브랜드K 제품 선정 확대(120→200개) : ('20) 4 → ('21) 62억원
- 해외시장 판로개척 집중 연계* 지원 : ('20) 984 → ('21) 1,114억원
* 대기업 채널을 활용 해외홈쇼핑 진출 및 KCON·한류박람회 등 국가행사 연계
- 품질관리를 위한 컨설팅·제품개선 지원 : ('20)129→('21)179억원

④ **K-건축·K-뷰티·K-농식품** ('20) 200 → ('21) 374억원(+174억원)

-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리모델링(6개소, 73억원), 재외공관 신축시 전통건축 양식·디자인 접목(3억원)
- 한국형 스마트시티 확산을 위한 정부간 협력사업* 지속 지원
* 해외도시에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타당성조사+초청연수 지원(35억원)
- K-뷰티 수출확대 위해 피부유전체분석센터·체험홍보관 설립(56→83억원)
- 스마트팜 수출패키지(데모온실, 교육 등) 지원(2→3개국) 및 한식 글로벌화를 위한 외국어 표준 메뉴판 보급(6천개소, 신규)(28→78억원)

□ 기대효과

- 신한류(K-Culture)로 전세계 한류 열기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소비재·관광산업 등 타 분야로의 긍정적 파급효과 극대화

* (사례) '방탄소년단(BTS)'은 '20.6월 온라인 콘서트 '방방콘'을 개최, 총 107개국에서 75.7만명이 관람, 약 250억원 이상 매출 추정(평균 관람료 3만4천원)

- 브랜드K 선정 제품에 대한 수출 지원으로 수출실적 증대

* (사례) '나인테일즈'(바르는 보톡스 제품)의 경우, '19년 브랜드K 선정 이후 프랑스 홈쇼핑 진출로 110만불 판매, 아시아·미국시장 수출 20배 이상 증가

- 재외공관 그린리모델링으로 에너지비용 절감(연간 15.6억원) 및 우리나라 건축기술 홍보 기회로 활용

(기획재정부 담당 : 산업중소벤처예산과 박민정사무관, 044-215-7311)

□ 예산 : ('20) 12,647 → ('21) 19,393억원

□ 주요 내용

◇ 신재생에너지원 보급 확대, 지역분산형 에너지 시설 확충, 수소 산업 진흥 등을 통한 에너지 전환 가속화

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20) 8,305 → ('21) 12,788억원

○ (보급) 재생에너지 용자*·보급지원** 예산 확대를 통해 주택·건물·학교·농촌·산단 지붕형 태양광 설치 등 지원

*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억원): (20) 2,926 → (21) 3,133

**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억원): (20) 2,820 → (21) 5,740

- 특히, 기술력은 우수하나 신용도가 낮은 재생에너지 제조기업, 발전사업자 용자지원을 위한 녹색보증기금 출연 신설(500억원)

○ (계통)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대비 및 특정지역 집중에 따른 전력 계통 불안정 해소를 위해 송전망과 연계한 공공 ESS* 설치

* 재생에너지 계통수용 확대 공공 ESS 구축(억원): ('21) 132

-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에 정보제공장치를 부착하여 변동성이 높은 재생에너지의 발전출력·전기품질 제어 기반 구축

*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 기반구축(억원): (21) 60

○ (수용성) 지역주민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투자비 저리용자를 통해 이익공유형 주민참여 사업('21. 370억원) 확산

○ (기술개발) 태양광발전 기업공동 활용 연구센터·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구축,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 개발 등 R&D 지속

* 태양광발전 기업공동활용 연구센터 구축(억원): (21) 100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구축(억원): (21) 34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억원): (20) 2,535 → (21) 2,719

② **지역과 함께하는 에너지 시스템 구축:** ('20) 45 → ('21) 619억원

- **(신재생에너지 지원센터)** 25개 기초자치단체에 신재생에너지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에너지계획 수립·지역사업 등 지원

* 지역에너지절약(신재생에너지지원센터)(억원): (21) 33

- **(마을단위 스마트그리드) 재생에너지 기반의 스마트그리드 모델**을 개발하는 실증사업 진행(15개소)

* 마을단위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 진행(억원): (21) 49

- **(도서지역 친환경 발전시스템)** 42개 소형도서의 에너지 자립화·효율화·친환경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ESS 등 구축

* 농어촌전기공급사업(도서지역친환경발전시스템)(억원): (21) 392

- **(해상풍력 지원)** 지역의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입지발굴(1GW추가) 및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1→ 3개소)

*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개발지원: (20) 25 → (21) 75

해상풍력 산업지원(억원): (20) 20 → (21) 70

③ **수소경제 확산기반 조성:** ('20) 4,297 → ('21) 5,986억원

- **(수소생산·공급 인프라 확충)**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수소가격 지속 안정화를 위한 생산방식 다양화 및 생산거점 확충 등

* 소규모 생산기지: ('20) 8개소 → ('21) 17개소(신규9개소)

* 수소유통기반구축: 튜브트레일러 지원(16개), 충전소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수소산업 진흥)** 주거·교통 등에 수소에너지를 활용하는 시범 도시 조성 및 수소전문기업 육성, 대국민 홍보 강화

* 수소도시지원(억원): ('20) 125 → ('21) 245('20~'22년 3개소 조성)

* 수소산업진흥: 수소전문기업 육성(20개 기업), 수소종합포털시스템 구축

- **(수소 안전관리)** 안전관리·안전성 평가 기술 개발과 병행하여 수소시설 안전검사 장비 구축 및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

* 수소충전 안전관리 기술개발: ('21) 40억원, 수소용품 검사시설 구축비: 55억원 등

□ **기대효과**

◇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저탄소 친환경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 및 미래 먹거리로서 에너지 신산업 육성

*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19) 12.7GW → ('22년) 26.3GW

* 현재 기초수준의 수소 관련 기술을 '26년까지 원천기술 보유 달성

(기획재정부 담당 : 기금운용계획과, 정윤희 사무관, 044-215-7171)

(기획재정부 담당 : 산업중소벤처예산과, 정민철 사무관, 044-215-7312)

(부처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이권재 사무관, 042-481-1649)

□ 예산 : ('20) 0.3조원 → ('21) 7조원

□ 주요 내용

◇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하여 디지털·그린 뉴딜분야 신산업, 벤처창업 등을 지원하는 혁신모험자금 7조원 공급

< 투자 > 5조원

①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 (조성규모) 「한국형 뉴딜」 뒷받침을 위해 대규모 민간자금이 투자하는 펀드 조성
- (투자분야) 저위험·저수익 프로젝트(예: 공공 인프라 조기 완공 등)
- (정부지원) 민간 참여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위해 출자

② 스마트대한민국펀드

- (조성규모)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매칭하여 '20~'25년 6년간 「스마트대한민국펀드」 6조원 이상 조성
- (투자분야) 비대면·바이오·그린뉴딜 분야 스타트업·벤처기업

③ 미래환경산업펀드 ('20) 200 → ('21) 300억원

- (조성규모) '21~'25년 2,150억원 조성
- (투자분야) 녹색산업 영위기업 201개소 지원

< 보증 > 1조원(재정 980억원)

④ 기보 언택트 보증 0.6조원 ('20) 800(추경) → ('21) 480억원

- (조성규모) '21~25년간 총 3조원 공급('21년 6,000억원 공급)
- (보증대상) 데이터, 네트워크 등 언택트 기술 개발기업과 원격 의료, 온라인 교육 등 비대면·디지털 기술 활용기업

⑤ 기보 녹색 보증 0.4조원 (신규) 500억원

- (조성규모) '21~25년간 총 1.8조원 공급('21년 3,500억원 공급)
- (보증대상) 신재생에너지 대형 프로젝트 지원

< 융자 > 0.3조원(재정 2,820억원) → 1조원(재정 9,721억원)

⑥ 미래환경산업(융자) 0.3조원 (신규) 3,111억원

- (조성규모) '21~25년간 총 1.5조원 공급
- (융자분야) 청정대기, 자원순환, 물순환 등 환경산업 기업 및 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녹색설비 투자에 필요한 자금

⑦ 신재생에너지(융자) 0.7조원 ('20) 2,820 → ('21) 6,610억원

- (조성규모) '21~25년간 총 5조원 공급
- (융자대상) 신재생에너지 발전·생산·이용시설

□ 기대효과

- 금융지원을 통한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 유망 스타트업·벤처 발굴,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비대면화와 생명공학 분야 혁신이 가속화에 따라, 디지털·그린 분야 투자 수요 급증
→ 투자금이 적기에 신속히 공급된다면 벤처붐 확대 및 대규모의 일자리 창출 가능

* 상장 벤처기업 평균 고용 증감('19.말→'20.1분기) : (비대면) +6.3명 (대면) +1.9명
비상장 벤처투자 기업 평균 고용 증감('19.말→'20.1분기) : (비대면) +2.1명 (대면) +1.4명

- 민간 유동성을 유인할 수 있는 안정성+수익성을 모두 갖춘 생산적 투자처 제공

33

지역활력을 높이는 「지역소멸 대응 프로젝트」

(기획재정부 담당 : 행정예산과, 김남희 사무관, 044-215-7411)

□ 예산 : ('20) 18,320억원 → ('21) 23,223억원 (+4,902억원, 26.8%)

□ 주요 내용

◇ 저출산·고령화 등 지역의 인구유출 및 활력 저하 +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 해소를 위해 젊은 인구의 지역유입·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

① (유입·정착) ('20) 6,361 → ('21) 8,721억원

: 지역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청년 정착기반 조성

- 지역 청년 디지털 일자리(+7천명, 784억원) 신설, 청년 공동체(100개) 및 자립마을(+12개소, 77억원) 전국 확대 조성
- '농촌 6개월 미리 살아가기' 등 귀농귀촌 패키지(136억원→217억원), 청년 영농정착지원금(인당 최대 100만원, 314→334억원) 확대

② (지역 활력 찾기) ('20) 11,633 → ('21) 14,115억원

: 도시재생, 어촌 뉴딜 등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 농촌공간활력 프로젝트 신규 추진(5개소), 어촌뉴딜(190→250개소)·도시재생 확대 등 농어촌 및 낙후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 지역 유희시설 활용한 특화 숙박시설(20억원, 2개소), 농어촌 돌봄·의료 확충(분만산부인과 설치 5개소, 운영 26개소) 등 체감도 높은 인프라 지원 강화

③ (지역 다양성 확충) ('20) 327 → ('21) 387억원

: 다문화·외국인 등 다양한 주민에 대한 포용성 제고 등

* 지역사회통합체계 구축(16개소, 신규), 토바기 체육돌봄(10억원, 신규) 등

□ 기대효과

- 청장년층의 시각으로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쇠퇴하는 지역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주민 삶의 질 개선

* (예) 청년 정착 패키지 : 청년 공동체 100개 육성(저변마련) + 청년 자립마을 유입(선도) + 지역거점형 소통협력 공간 조성(연계·확산) ⇨ 지역 활력 ↑

(기획재정부 담당 : 복지에산과, 김형은 사무관, 044-215-7512)

(부처 담당 : 보건복지부, 이기욱 사무관, 044-202-3562)

(부처 담당 : 여성가족부, 박용준 사무관, 02-2100-6362)

□ 주요 내용

◇ 보육과 돌봄의 질제고 및 안전강화 위해 인프라 및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보육, 돌봄 이용인원 확대

① 보육 서비스 질제고 지원

-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 단가 인상(3.0%, 3.4조원), 보조·대체교사 확대(5.5→6.2천명, +970억원), 국공립어린이집 지속 확충(+600개소, 609억원), 노후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529개소, 752억원) 등 지원
- 어린이집 식중독 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 등 급식안전 관리 위한 보존식 보관 기자재(8,592개소, 30억원) 지원

② 수요 맞춤형 보육 서비스 확대

- 시간제 보육(690→890개소, 7.5→9.6만명)과 공동육아나눔터(268→332개소) 확충, 아이돌보미 지원시간(720→840시간) 및 돌보미 양성(4→8천명) 확대

③ 초등돌봄 인프라 확충

- 학교돌봄교실(+700실, +1.4만명), 다함께돌봄센터(+450개소, +2.2만명) 등 기존 초등 돌봄 인프라 확대
- 지자체-학교(교육청)간 협업을 통해 초등학교 내 교실을 활용한 초등교실 활용 돌봄사업 신규 추진(750실, +1.5만명)

□ 기대효과

-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다양하고 질높은 보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맞벌이 가구 등이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 공보육 이용률 확대 : ('20) 32% → ('21계획) 36% → ('22계획) 40%

* 초등돌봄확대 : ('20) 40.8만명 → ('21계획) 45.9만명 → ('22계획) 53만명

(기획재정부 담당 : 고용환경예산과, 주취택 서기관, 허성용·이성택 사무관,
044-215-7231~3)

□ 예산 : ('20) 2,594억원 → ('21) 3,602억원(+1,008억원, +38.8%)

□ 주요 내용

◇ 중장년층은 비자발적 실직자 비중이 높고 구직활동에 적극적이나, 생계부담 등으로 **직업훈련 참여 저조 & 체계적 이·전직 준비 부족**

* 40대 구직자 실태조사 결과('20.1월) 비자발적 퇴직 45.3%, 퇴사전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12.7%

** 국기훈련 참여 실업자('18년, 만명): (20대) 10.4, (30대) 4.0, (40대) 3.3, (50대 이상) 4.5

① **조기재취업수당** ('20) 2,594 → ('21) 3,474억원(+880억원, +33.9%)

: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 재취업 시, 지급 수당 확대**

* ('20) 구직급여 수급기간 **1/2이상 남기고** 재취업시 **잔여급여의 1/2 지급**

→ ('21) 수급기간을 **2/3이상 남기고** 재취업시 **잔여급여의 2/3 지급**

- 약 94,500명에 평균 367만원 지원

② **40대 훈련생계비 한시 지원** (신규) 75억원

: 생계부담 등으로 장기간의 직업훈련 참여가 어려운 **40대** 중심으로 훈련기간 중 생계비 지원

* (요건) 가구별 중위소득 50% 이하 및 실업급여 미수급자

(금액) 3인 가구 이하 月 90만원 / 4인 가구 이상 月 110만원, 6개월

③ **재취업서비스지원** (신규) 52.9억원

: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기업 등에 제도 도입에 관한 컨설팅,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보급, 담당자 교육 등 지원

* 경력·적성 진단,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창업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

- 컨설팅 지원 (500개社×8.5백만원), 재취업지원서비스 프로그램 (5개 과정×90백만원), 기업담당자 교육 (1,000명×0.4백만원) 등 지원

□ 기대효과 : 중장년 이·실직자의 재취업 소요기간 단축

①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소요기간 단축

② 40대 훈련생계비 지원: 중장기 직업훈련 참여 촉진으로 조기재취업 유도

③ 재취업서비스지원: 중장년 이직자 구직기간 단축 및 양질의 일자리로 이동 지원

(기획재정부 담당 : 고용환경예산과, 주희택 서기관, 044-215-7231)

(부처 담당 : 고용노동부, 윤수경 서기관, 044-202-7352)

□ 예산 : (신규) 849억원

□ 주요 내용

- ◇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자(특고), 자영업자 순으로 단계적 확대 추진
- ◇ 저소득 예술인·특수형태근로자의 고용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 구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지급

①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두루누리) (신규) 691억원

: 최저임금 120%미만 예술인·특고에 고용보험료 80% 지원

- 예술인: 3.5만명, 12개월('20.12월 고용보험법 적용)
- 특고: 43만명, 6개월('21.7월 고용보험법 적용 전망)

② 구직급여 (신규) 64억원

: 예술인(3,710명*)에 구직급여 30일분** 신규 지원
(특고는 '21년 구직급여 적용대상자 미발생)

* 고용보험 적용 대상 3.5만명 중 구직급여 수급 예상인원

** '21.10월 이후 수급요건 충족 예상 → 평균 30일 수급 예상

③ 출산전후휴가급여 (신규) 94억원

: 예술인(215명), 특고(1,709명)에 3개월간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

□ 기대효과

- 예술인·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에 따라 단계적 전 국민 고용안전망 확충

* 예술인: 문화예술 용역계약 종료 후 공백기간에 구직급여 수급 가능
특수형태 근로자: 출산휴가급여 수급 통해 소득단절 없이 안정적 생활 가능

(기획재정부 담당 : 국토교통예산과, 김금비 사무관, 044-215-7342)

(부처 담당 : 국토교통부, 신동하 사무관, 044-201-4519)

□ 예산 : ('20) 27.4조 원 → ('21) 31.7조 원(+4.3조 원, 15.6%)

□ 주요 내용

◇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된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주거복지사업 지원 확대

① 공적임대주택 : 16.4 → 19.0조 원(+2.6조 원, +16%)

○ (공급 확대) 올해보다 0.9만호 늘어난 **총 19.0만호**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당초 계획인 18.7만호 대비 +0.3만호 추가 공급*)

* 내년에 즉시 입주할 수 있는 매입·전세임대 형태로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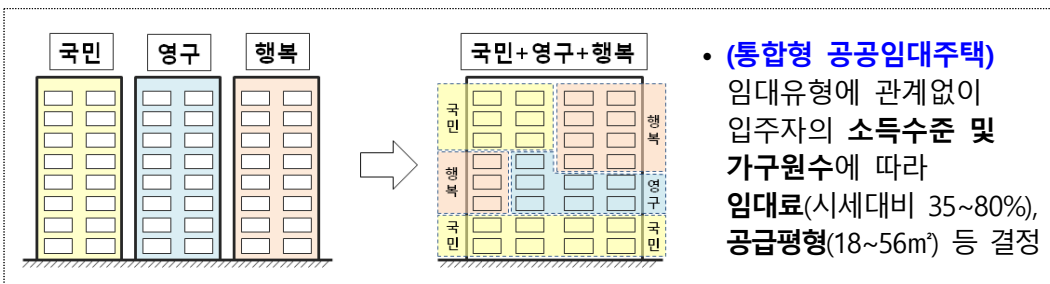
- 특히, **청년(4.5→5.0만호)** 및 **신혼부부(5.2→6.0만호)** 중심으로 물량을 확대하고, 다자녀 유형을 신설(0.4만호, 신규)

• (청년 역세권 매입임대) 아르바이트를 하며 취업 준비 중인 A씨는 **교통이 좋은 곳의 원룸**에 거주를 희망하지만, 월세 60~80만원으로 가격이 높아 고민이 많았다.

⇒ 청년 역세권 매입임대(20년 3천호→21년 5천호) 입주자로 선정되어 월 20만원대 임대료로 냉장고·세탁기 등 필수집기가 갖춰져 있는 1인실 원룸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다.

- 도심 내 **공실 오피스·상가**를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임대할 수 있도록 최대 50백만원까지 리모델링 비용 융자 지원(신규, 400호)

- 국민·영구·행복주택 등 기존의 복잡한 유형을 하나로 통합, 다양한 소득·연령계층이 어울려 사는 **통합형 공공임대주택** 신규 도입(0.4만호)



- (품질 향상) **역세권** 등 청년·신혼부부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원단가를 5~11%** 수준 인상

* '21년 단가 인상률 : 건설임대 5%, 매입임대 7%, 전세임대 11%

- 기존 노후임대주택은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업그레이드(1.0→8.2만호)**

② 주거급여지원 : 1.6 → 2.0조원(+0.4조원, +21.9%)

-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소득감소 및 수급자수 증가에 대응하여, 주거급여 **지원 가구수를 대폭 확대(108.9→120.2만 가구)**
- **기준임대료**를 급지별로 **3.2~16.7%** 인상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

(단위 : 만원)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세종시)		4급지(그외 지역)	
1인가구	31.0	(+4.4)	23.9	(+1.4)	19.0	(+1.1)	16.3	(+0.5)
2인가구	34.8	(+4.6)	26.8	(+1.6)	21.2	(+1.4)	18.3	(+0.9)
3인가구	41.4	(+5.5)	32.0	(+1.8)	25.4	(+1.8)	21.7	(+0.8)
4인가구	48.0	(+6.5)	37.1	(+2.0)	29.4	(+2.0)	25.3	(+1.4)
5인가구	49.7	(+6.8)	38.3	(+1.8)	30.3	(+1.8)	26.1	(+1.2)
6인가구	58.8	(+8.4)	45.3	(+2.3)	35.9	(+2.8)	30.9	(+1.8)

* 괄호는 '20년 대비 증가액,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9인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적용)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20대 미혼 청년**이 자립하여 취학, 구직 등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급여 별도 지급**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충남 거주 부모(2명) + 판교 거주 청년(1명)로 구성된 3인 가구
(‘20년) 부모+청년(충남 3인) : 월 20.9만원
⇒ (‘21년) 부모(충남 2인) : 월 18.3만원, 청년(판교 1인) : 월 23.9만원

③ 주택 구입·전세자금 융자 : 9.4 → 10.7조원(+1.3조원, +13.8%)

-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과 **전·월세자금** 지원을 위해 **디딤돌 대출 및 버팀목 전·월세 대출** 지원 확대

-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월세 60만원의 원룸에 거주하던 직장인 B씨는 인근의 **전세 1억원인 소형 아파트** 입주를 희망하였다.

⇒ 그동안 저축한 3천만원에 더하여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금리 1.5~2.1% 우대금리 별도) 7천만원을 받아, **월 8.8만원의 이자**(금리 1.5%)만 부담하고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게 되었다.

(기획재정부 담당 : 국방예산과, 이만구 사무관, 044-215-7451)

(부처 담당 : 국방부, 이효정 사무관, 02-748-5331)

□ 예산 : ('20) 35,002억원 → ('21) 38,481억원(+3,479억원, 10%)

□ 주요 내용 : 「장병 사기진작 7종 패키지」 지원

- ◇ 생산적 병영문화 구현을 위해 장병 복무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
- 군 복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장병 자기개발 지원, 의식주 질적 개선 및 민간의료 접근성 보장

① 인건비 : 21,081 → 22,480억원

- 병 봉급 125% 인상(병장 541→609천원), 단기복무장려금 단가 인상(300→400만원)

② 이발비용 : (신규) 421억원

- 전체 병사 35.1만명에게 월 1만원 이발비 지급

③ 급식 : 11,134 → 11,557억원

- 급식 단가 35% 인상(8,493→8,790원/일), 민간조리원 확충(1,985→2,278명, +293명)

④ 피복 : 1,465 → 1,855억원

- 기본피복(8종), 특수피복(4종)의 품질·안전성 개선

⑤ 자기개발비 : 80 → 235억원

- 지원 인원을 병 정원의 23%→70%까지 확대(8만→23.5만)

⑥ 병사 군단체보험 : (신규) 134억원

- 병사들의 민간병원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험료 지원(보험료의 80% 지원)

⑦ 독신자숙소 : 1,242 → 1,799억원

- 간부숙소 부족소요 신축 및 노후숙소 리모델링(3,764→4,890실)

□ 기대효과

○ 국방의무를 이행하는 신세대 장병들의 복무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기획재정부 담당 : 방위사업예산과, 김길남 사무관, 044-215-7466)

(부처 담당 : 방위사업청, 유제환 사무관, 02-2079-6721)

□ 예산 : ('20) 4,786억원 → ('21) 7,669억원(+2,883억원, 60.2%)

□ 주요 내용

◇ 선진국이 기술이전을 회피하는 첨단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주요 부품을 국산화하는데 집중 투자 →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① 핵심기술개발 투자 확대 ('20) 4,015 → ('21) 6,318억원

- 자율·인공지능, 초연결 등 국방전략기술 8대분야 개발 과제 100개 확대 (273 → 373개)
- 우주기술 등 미래기술 개발 투자 확대 (580 → 1,204억원)

② 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확대 ('20) 371 → ('21) 886억원

- 차세대 국산 전투기, 잠수함 등 주요 무기체계의 핵심 부품 개발 지원 확대 (190 → 590억원)
- 수출제한품목 발굴 및 개발 과제 신설 (신규) 197억원
- 수입 대체품 등 시제품 제작 지원 확대 (4 → 160건)

③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확대 ('20) 400 → ('21) 465억원

: 방산 수출을 위한 해외 軍 맞춤형 무기체계 개조 개발 지원

□ 기대효과

○ 첨단 무기체계 기술 독립성 확보 →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 미국이 기술이전을 거부했던 AESA 레이더 독자 개발 성공 → 보라매 등 한국형 전투기에 장착('26년 전력화)

◇ 부품 국산화율 확대: ('15)66.1% → ('18)69.8% → ('22)75% 목표

(기획재정부 담당 : 행정예산과, 윤홍기 사무관, 044-215-7413)

□ 예산 : ('20) 2,733억원 → ('21) 3,258억원(+525억원, 19.2%)

□ 주요 내용

◇ 융합ODA(부처간 역할분담 및 협업으로 지원되는 공적원조) 양·질 제고를 통한 한국형 '패키지 개발원조 모델' 확립

① 융합 ODA 양적 확대 ('20) 70, 2,733 → ('21) 86개, 3,258억원

- 예산편성 前 관계기관에 유상사업리스트 先 배포 등을 통해 융합 ODA 사업 적극 발굴 → 양자 ODA 규모의 11.2%
- 특히, 신남북방 중시 대외전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지역에 융합 ODA 사업* 적극반영(+28.8%)

* 신남방 융합 ODA : ('20년) 36개, 1,268억원 → ('21년) 48개(+12개), 1,784억원(+40.7%)

* 신북방 융합 ODA : ('20년) 6개, 501억원 → ('21년) 14개(+8개), 495억원(△1.2%)

② 융합 ODA 질적 제고 : 우수 프로그램 개수 및 유·무상 연계 사업 확대

- 사업 간 시너지 효과가 높고, 우리 대외전략과 부합하는 우수* 융합 프로그램 대폭 확대(10→21개)

* ①구체적 융합내용이 존재하여, 사업간 높은 시너지 효과 기대 ② 다부처가 사전 공동기획 및 공동 요구 ③우리 대외전략(중점협력국, 중점협력분야 등)과 부합 ④사업 효과성 기대 → 모두 충족한 경우 우수 프로그램 선정

- 인프라 건설을 통한 물적기반 구축(유상)+후속관리(무상)로 이어지는 유무상 연계 사업 확대(20→26개)로 원조효과성 향상

□ 기대효과

- 수원국 맞춤형 지원으로 원조 효과성 향상 + ODA 사업간 유사중복 방지 가능

◇ (예시) 병원건립(인프라, HW성격) + 의료 기자재 + 의료진 역량강화(SW 성격) 등 부처간 사전 역할분담을 통해 패키지 지원 → 재원투입 대비 수원국 만족도 향상

2021년 예산안
중점 프로젝트 예산

